



2020 대입 면접후기 자료집





교육대학교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인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23일	합격유형	총원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교직적성전형
면접개요	면접형식 및 인원	· 개별면접/집단면접, 면접관 2명	
	평가내용	· 교직적성, 사실 확인, 논리적 사고력, 협업능력	
	문항유형	· 단순질문형	
	면접절차	· 대기실-개별면접실-대기실-집단면접실	
	면접시간	· 개별면접 10분/집단면접 50분(진주), 35분(경인)	
질문과 답변 요약	<p>■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교사가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p> <p>-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교사가 필요한 자질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타인과 협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칠판 앞에 서서 수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p>■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면서 주입식 교육 이외에 우리나라 교육이 변화해야 할 점은?</p> <p>- 강의식 수업보다 활동식 수업의 비중을 높이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론, 토의, 하브루타 등 활동식 수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 4C, 즉,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비판적사고능력, 창의력을 길러주는 데에 탁월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미래에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창의적인 인재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p>		
	<p>■ 그래도 강의식 수업이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요소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p> <p>- 강의식 수업이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효과적인 요소임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교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교실은 수업 전 교사가 단순 지식 전달을 위해 제작한 영상을 아이들이 미리 보고 오면 수업시간에는 활동식 수업으로 아이들의 지식 습득을 돕는 수업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강의식 수업의 장점과 활동식 수업의 장점을 모두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p>		
기타 특이사항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23일	합격유형	최초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참스승전형
면접개요	면접형식 및 인원	· 개별 면접(면접관 세 분) + 집단 면접(면접관 세 분)	
	평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면접 · 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거짓 없는가? · 자신이 해왔던 활동들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 · 교사라는 꿈을 왜 가졌으며, 이 꿈을 향해 고등학교 생활 내내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 집단면접 ·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의 상황의 지도 교사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지도할 것인가? ·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교실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올바른 교육관과 교사관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문항유형	· 개별+집단 면접	
	면접절차	<p>· 대기 OT(10분 간략하게 면접관님이 설명, 그 후 자신의 개별면접 차례까지 형, 누나들과 Q&A 시간) + 개별면접(10분) - 자신의 조원 대기 후 바로 집단면접 실시(3명 기준 10분)</p> <p>· 1. 집단면접 : 제시문 숙독(3분)+발표(1분)+상호 토론 및 면접관님 추가 질문(4분)</p>	

면 접 시 간	· 개별 면접(10분)-집단 면접(10분)=총 20분 소요(학생마다 개인 오차가 있음)
유 의 사 항	· 면접을 가게 되면 일단 면접 진행 방식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멘탈 흔들리지 말고 집중력을 유지할 것. 생기부 기반의 질문을 많이 하시니 자신의 생기부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것은 필수.

개별면접

■ **안녕하세요~**

- 네 감사합니다.

■ **학생의 성적을 살펴보면 점점 상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상승하면서 갑자기 한 번 푼 떨어진 적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말해주세요.**

- 면접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2학년 1학기 문학 과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문학 공부를 할 때 문학 작품 자체의 순수성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했지만, 내신 공부에서는 어느 정도의 암기 공부를 학생들에게 원했습니다. 암기가 뒷받침되지 않았기에 낮은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공부방식을 다양한 유튜브나 인터넷을 활용해 학습하고자 했고,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좋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뀐 공부 방식은 제게 좋은 성적을 가져다줬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 **생활기록부 수상 내역을 보면 멘토, 멘티 수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서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 저는 친구와 함께 활동을 할 때 수학 축전에 참여해서 알게 된 GEOGEBRA를 활용해 친구와 함께 학습을 했던 것이 임상을 하게 된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GEOGEBRA라는 매체를 활용해 문제의 함수를 시각화하여 보자고 서로 상의했고, 그래프를 보며 기존의 풀이 방식과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함수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저 두 명 모두의 성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 **수학과 관련된 이과 과목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 노하우 있을까요?**

- 물론 저도 다른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개념 학습 후 문제 풀이 학습에 집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GEOGEBRA와 같은 매체들을 활용해 기존과 다른 풀이 방법들을 찾고 함수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확신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수상 내역 중에 체험활동 소감문 수상이 있는데 어떤 내용에 관련된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 제가 체험활동 소감문을 쓰면서 인상했던 작품들 중에 낙안읍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2학년 문화탐방으로 낙안읍성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성의 모습, 외곽 모습, 돌담을 그런 형식으로 지은 이유 등 들었던 설명을 바탕으로 조상의 지혜를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 **초등학교 교사의 꿈이 지속적인데 언제부터 초등교사의 꿈을 가졌고, 왜 굳이 초등학교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건가요?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 초등학교 때 평소에는 말 잘 듣고 온순하던 제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께서 전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머니께서는 하시던 모든 일을 그만 두시고 제게 관심을 쏟아주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이 면접장소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초등학교 선생님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은사님처럼 학생들에게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대구교육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학생 지역에도 교대가 있을 텐데 왜 꼭 대구교대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지역 교대가 더 좋을 텐데? 대구교대만의 장점이 있는 건가요?**

- 저는 경북교육지원청에서 놀이학교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목표는 아이들이 놀이나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진로를 찾고, 다방면으로 사회에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북교육지원청 아래에 속해있는 대구교대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제 목표와 경북교육청, 대구교대의 미래 교육 방향성이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생회장 활동을 하면서 여름방학 때 학교장 대신 학생들에게 인사말로 연설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하려 했는지 간략하게 말해주세요.**

- 목표를 갖자. 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오면서 목표를 갖지 않았다면 쉽게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있다면 공부를 하고, 다른 활동을 하는 도중에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에 목표를 갖자고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 **YP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 데 YP 활동이 무엇이고 거기서 학생의 역할을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질문과
답변
요약

- YP활동은 쉽게 말씀드리다면 학생 자치 활동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YP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급식판 지도를 통해 올바르게 급식판을 놓을 수 있도록 지도하거나 선도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용의복장을 단정히 입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저는 급식판 지도 활동을 하기도 했고, 원활하고 효율적이게 YP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학생이 사용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저는 YP활동을 하면서 학생 활동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급식판 정리 구역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YP활동을 잇는 경우와 제대로 시간에 맞춰 나오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원인은 전달 사항을 잊어먹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고,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포스트잇에 적어 그 날 당번인 친구에게 전달해준다면 전달에 카톡을 보내 역할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YP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다른 학생들에 비해 독서 활동 내역이 많이 빈약한데, 이 부분은 독서를 잘 하지 않는 학생으로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독서 활동 내역들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에 비중을 두고 3년을 보내는 저이기에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짓말로 독서상황기록을 채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권을 읽더라도 그 한 권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이나 교훈들을 모두 뽑아내자고 마음먹었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거짓 없이 독서를 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학생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교육 봉사에 대한 부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면접관님 말씀처럼 교육봉사가 없고 청소봉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소봉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봐주는 활동에 참여했고,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 **아까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학생만의 노하우가 있었다고 말했듯이 어린이집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만의 노하우가 생겼나요?**

- 처음에는 많이 난처하고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낯설어 제대로 다가오지 못하고 저도 어떻게 다가야 할지 몰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에 졸업한 사촌누나께 자문을 구했고, 역할놀이나 역할극, 책읽기들이 아이들과의 거리를 좁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촌누나 말처럼 아이들에게 다가갈 배운 것들을 사용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지속해온 결과 아이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단면접

외동인 학생 A의 학부모님은 하나뿐인 아이라 아이에게 관련된 모든 물품들은 최고급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게 한다. 하루는 미술 시간에 학생 A가 고급 미술 도구를 학교에 가져온다. 학생 A의 친구들은 그것을 보고 부러움의 눈빛으로 모두 쳐다본다. 하지만 최고급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생 A는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난처해한다. 이를 본 지도교사 '나'는 아이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나갔다. 이 상황에서 지원자가 교사라면 어떤 식으로 학생 A와 학생 A의 학부모님을 지도해나갈 것인가?

- 저는 일단 학생 A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라포를 형성할 것입니다. 라포를 형성해야 아이와 진심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자신이 정말 원해서 고급 물감을 산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께서 사주셔서 단지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원해서 샀다면 아이에게 “너의 마음을 나타내는 도구들은 중요하지 않아. 이 흰 도화지에 너의 마음을 얼마나 잘 담아내는 지가 중요한 것이라.” 라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의 중요성보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사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라포를 형성한 후, “아이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학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시기는 더 인성적이고 인격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기에 아이의 발달 측면을 더 강조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 면접 방식이 조금 특이한데, 저와 같은 전형의 친구들을 몇 개의 조로 나누어 편성합니다. 이 때 한 조당 10명씩 배치를 받고 이 중에서도 가번호 순대로 3 3 4명씩 다시 조를 개편합니다. 제일 처음 순서의 가번호 친구 3명이 개별 면접을 일괄적으로 보러 가고 3명의 개별 면접이 끝나면 이 친구들이 다시 면접실로 들어가 집단 면접을 실시합니다. 3명으로 한 조가 된 친구들의 개별과 집단 면접이 모두 끝나면 다음 3명으로 구성된 두 번째 조 친구들이 입실하고 순서대로 개별을 실시하고 3명 모두 개별 면접을 실시하면 집단 면접을 실시합니다.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23일 오후	합격유형	최초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참스승전형
면접개요	면접형식 및 면접인원	· 혼합형(개별면접 : 지원자1명 - 면접관3명, 토의면접 : 지원자3명 토의 - 면접관3명)	
	평가내용	· 개별면접 : 교직적성, 교직인성, 교직능력 · 토의면접 : 교직적성, 교직인성	
	문항유형	· 개별면접 : 서류 기반 질문형 · 토의면접 : 제시문 기반 심층면접형	
	면접절차	· 대기실 → 면접실 앞 대기 → 면접실(개별면접) → 면접실 앞 대기(같은 조 개별면접이 모두 끝날 때까지 대기) → 면접실(토의면접, 개별면접과 면접실 및 면접관 동일) → 개별귀가	
	면접시간	· 개별면접 : 10분 내외 · 토론면접 : 답변구상시간 3분, 답변 1분, 지원자 간 자유토의 및 면접관 질문 4분 (총 10분)	
	유의사항	·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교복 착용 금지	

질문과
답변
요약

[개별면접]

■ **평소 책을 많이 읽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자기 전 시간을 활용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독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요즘은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까?**

- 교실 속 갈등상황 100문 101답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 **그 책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있을텐데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에는 어떤 게 있나요?**

- 저는 '왕따'라는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왕따'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해자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가해자만 처벌하고는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함께 치료를 받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심적인 부분 등에서 상처를 준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쪽만 나쁘게 몰아가기 보다는 양측을 모두 살펴 보아야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 **교실에서 학생들이 생활하다보면 싸움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요?**

- 이런 갈등 상황은 보통 대화가 부족하여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친구를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발생한 그 상황에서 바로 대화를 시키기 보다는 두 친구 모두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도록 기다렸다가 대화를 시도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쪽의 입장만 듣기보다는 두 친구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서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후 대화를 통해 두 친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초등학생들은 서로 이해하거나 이런 게 잘 안될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요?**

- 두 친구를 진정시키면서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주고 이런 갈등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토의면접]

■ **제시문 : 한 아이의 5학년에 이어 6학년에도 담임을 맡음. 5학년 때는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매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이었던 아이가 6학년이 되자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멀어짐. 이 아이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 학생이 갑자기 의욕이 떨어진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의 평소 행동을 관찰해서 친구 관계나 그 이외의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요즘 어려운 일은 없는지 상담을 할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의욕이 떨어진 상태라면 도우미 친구를 지정해서 도와주거나 저와 독서 등의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욱 쉽게 의욕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접근할 것입니다.

(토의 내용)

-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학부모 상담을 하는 게 옳은가?
- 학생과 상담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면접관학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학부모 상담을 안 할 것인가?
 -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장에는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과 이야기를 통해 학부모와의 상담을 하는 것에 동의를 이끌어낸 후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특이사항

- 대기실에서 지원자 간 대화가 허용되기 때문에 매우 자유로운 분위기이고 긴장도 풀 수 있다.
- 제시문이 교육 시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책을 읽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 토의면접에서 같은 조 지원자들끼리 인사 등을 미리 정하고 들어가면 좋다.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부산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학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23일		합격유형	최초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다문화가정전형
면접개요	면접형식 및 면접인원	· 심층면접; 지원자 3명-면접관 3명		
	평가내용	· 좋은 선생님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의 인성		
	문항유형	· 적성 및 교육관 질문		
	면접절차	· 면접실에 입실하여 교수님 세분의 질문을 돌아가면서 답변		
	면접시간	· 10분~18분 (답변길이에 따라 달라짐. 한 질문당 최대 2분)		
	유의사항	· 수험표 꼭 뽑아서 가기. 옷핀 준비		

질문과 답변 요약

- 질문1 : 자신이 초등교사가 된다면 해 보고 싶은 수업이 있나요?
 - 답변1 : ‘작가되어보기’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작가가 되어서 자신만의 글을 써보는 것은 감수성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했던 문학이 아닌, 자신이 능동적으로 직접 체험해보며 문학의 즐거움을 깨달아간다면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입시형 문학 교육에서 자신만의 문학적 즐거움을 찾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저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입시위주의 문학수업에 회의감을 느꼈었는데, 플러스교육 과정 ‘현대문학감상’을 통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자신이 직접 문학작품을 창작해보고 친구들의 서로 다른 생각들을 들어보거나, 책의 구절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석해보는 등 마치 자신이 작가가 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은 제게 문학의 즐거움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수능대비를 하면서도 문학의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해 가끔씩 문학 그 자체에 빠져드는 시간을 가져 봤던 것 같습니다.
- 질문2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대처가 불가능하다면, 인공지능과 차별되는 교사의 자질은 무엇인지 세가지 말씀해주세요.
 - 답변2 : 저는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저장되어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강점이 있으므로 전달력, 전문성부분에서는 현재의 교사보다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교사는 학업에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 무한의 영역을 인공지능의 감각으로는 다 메꾸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교사는 사랑, 공감, 책임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은 교사와 학생이 수단적인 관계가 아닌, 전인격적인 관계가 되기에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는 공감입니다. 교사의 잦아들 아닌 학생의 시선으로 왜 이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이해하는 것. 초등학생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려입니다. 초등학생의 시각으로 공감을 하더라도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학생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책임져야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3 : 본 학교는 학생들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세요.(질문이 생각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3 :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수준의 학업역량도 물론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중 하나입니다만 종합전형을 통해서 그 학생의 학업역량을 포함한 교직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 주기등의 학생부 조작과 관련된 사건이 요즘 이슈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있는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부산교대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특이사항	·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다른 지원자가 말할 때 경청하여야합니다.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부산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학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23일		합격유형	최초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개요	면접형식 및 면접 인원	· 면접관 3인이 지원자 3인 내외를 1개 조로하여 다 대 다 면접 실시		
	평가내용	·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자질 및 교직 수행 능력을 측정		
	문항유형	· 심층면접		
	면접절차	·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인성, 자질에 관해 질문함. 교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잠재력을 질문함.		
	면접시간	· 1개 조당 25분 내외		
	유의사항	·		
질문과 답변 요약	<p>■ 자신이 교사가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싶나요?</p> <p>- 자신의 직업 소개 및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싶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고 다양한 직업이 생겼고 그렇기에 자신이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많은 직업을 새롭게 알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다.</p>			
	<p>■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단점을 말하고 교육대학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p> <p>-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의 성실함, 수업 태도, 책임감 등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역량에 따라 학생이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다르게 적힌다. 교대에 맞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왜냐하면, 교사는 성적뿐만 아니라 인성 등도 갖추어야 하므로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p>			
	<p>■ '인공지능의 발달로 교사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시대에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요?</p> <p>-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생의 기본적인 인성, 태도를 길러주고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길러주는 것이다.</p>			
	기타 특이사항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부산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학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23일 오후		합격유형	최초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개요	면접형식 및 면접 인원	· 3 : 3 집단 면접		
	평가내용			
	문항유형			

면 접 절 차	· ABC BAC CAB 순서로 답변해야함. (저는 B였습니다.)
면 접 시 간	· 25분내외라고 적혀있지만 추가질문이 없었음. (추가질문 있는 조를 본 적 없음) 18분 정도
유 의 사 항	· 질문을 듣고 바로 말해야하기 때문에 질문을 잘 들어야하며 다른 지원자의 의견을 듣고 있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해야함. · 최대한 2분을 채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음

질문과
답변
요약

■ 질문1 : 자신이 하고 싶은 수업 또는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말하고(기획하고) 이유를 제시하라

-답변1 : 저는 예체능 수업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자아정체성을 성립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음악이라는 과목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기분을 슬픈노래 신나는노래 등으로 불러봄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도록 도와주거나 음악을 듣고 이 음악의 분위기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면서 감정의 종류 또한 알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자신에 대해 가사등을 쓰면서 자기표현의 기회와 자아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또한 체육에서도 현재 기분을 몸으로 표현을 하거나 자신이 가장 자신있는 ~~ (기억안나요πππ) 연극을 하면서 다양한 인물들에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미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색갈과 선의 거침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현재 상태에 집중하고 자신을 표현한 날 수 있는 수업과 옛날 사진등을 활용하여 지금의 나는 어떤 면에서 달라졌는지 같아졌는지를 알게 하는 등의 수업들을 만들어 아이들이 자기자신을 알 수 있도록 돕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질문2 : 학생부 종합의 장점과 단점 보완방안을 이야기해봐라 (질문은 좀 더 길었는데 의도가 저거였음)

-답변2 : 학생부 종합의 장점은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각 교과목 내에서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초등교사라는 직업이 하고 싶어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각 과목에서 교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초등교사가 되고 싶어졌고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나요..) 단점으로는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의 차이 등으로 현재 사회에서 주목하는 만큼 공정성의 문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자가검진표를 교사에게 주고 이를 통해 교사는 자가검진표에 맞추어 문제를 내고 자신이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 후 장학사의 파견을 통해 좀 더 면밀하게 특히 교사가 낸 자가검진표가 제3자가 보았을 때에도 잘 검사했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면 시험과 수행평가내의 공정성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3 : 시가 교사를 대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4차산업시기에 교사가 지켜야할 자질은 무엇인가?

-답변3 : 시가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진심의 결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행동이나 사고가 변화되는 이유는 교사의 진심어린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는 공감하는 태도를 보일 수는 있지만 진심과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성적인 측면 그리고 문제가 있을 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적인 측면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질문을 잘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시는 100가지를 알려주기 위해 100가지의 질문을 만들어 아이들이 답을 찾게 하지만 인간 교사는 100가지 중 하나의 질문으로 100가지를 알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든다는 점에서, 사람에게 동기유발을 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교사는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아이들을 대해야합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기 과학지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교사가 균형있게 앞서 지원자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문학적 수업을, 사이버 활용이 잦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윤리적 교육까지 교사가 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수업을 이끌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특이사항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부산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학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23일 오후	합격유형	최초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개요	면접형식 및 면접인원 · 면접위원 3인이 지원자 3인 내외를 1개 조로 하여 다대 다 면접 실시		

평가내용	·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자질 및 교직 수행능력을 측정
문항유형	· 생기부 및 제시문기반X
면접절차	· 대기실 → 면접실 → 퇴실
면접시간	· 25분내외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질문과
답변
요약

- **질문1 :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 생각해 놓은 학급활동에 대해 말해보세요.**
 -답변1 : 수호천사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학급에서 제비뽑기로 친구 1명을 선택합니다. 그 친구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1달동안 그 친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선행을 실천해 봅니다. 그리고 1달뒤 친구가 받은 고마움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수호천사 친구를 밝힙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반 친구들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봉사를 실천할수 있으며 좀 더 친밀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이 활동의 단점은 없다고 생각하나요?**
 -답변 : 단점으로는 서로 평소에 갈등이 있어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라면 이 활동을 꺼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활동을 통해서 두 친구가 화해하고 친해질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2 학생부종합 전형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 교대 입시 방법 중 자신이 도입하고 싶은 것 말해보세요.**
 -답변2 : 학생부종합 전형의 장점은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단순 성적이 아니라 생기부를 통해 자율,진로,동아리활동 및 행동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학과별로 좀 더 좋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단점으로는 최근에 이슈가 되었지만 비리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황실수설, 기억이 잘 안남) 학교마다 대회 개수나 활동량도 다르고, 생기부는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질문3 : 4차산업혁명시대 속 시 로 인해 교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때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교사가 배워야 할 것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질문 정확히 기억 안남)**
 -답변3 : (앞 친구가 시는 공감능력이 없다고 말했는데 면접관님이 가우동하셔서 이 점 유의함) 시가 미래에 공감능력을 갖출수는 있으나, 가까운 미래를 생각해 보았을 때 엄연히 로봇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인 교사만큼 공감과 배려를 갖추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교사는 코딩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연수를 받거나 외부기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시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생이 지각회수, 각 과목의 흥미도 등을 통계화하여 학생에게 맞춤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활용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추가제가 학생의 대답 중 교사의 역할을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답변 : 답변내용 추려서 다시 말함.
- **그래서 결국 공감 ~~~ 교사라는 거죠? (공감보다 교사의 빅데이터 활용 중심으로 말했는데 이렇게 재질문하심.....)**
 -답변 : 네 맞습니다. (그냥 맞다고 함.)

기타
특이사항

· 추가질문을 전혀 안받은 친구도 있고 추가질문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순발력과 대처력은 필수. A-B-C /B-C-A/C-A-B 순으로 답변진행. 그리고 3명을 거치기 때문에 마지막 답변자는 질문을 까먹을 수 있다. (나 역시 질문3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남다) 속으로 질문 속 키워드 계속 암기하면서 생각하기.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부산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학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23일 오후		합격유형	최초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개요	면접형식 및 면접인원	· 면접위원 3인이 지원자 3인 내외를 1개 조로 하여 다대 다 면접 실시		
	평가내용	·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자질 및 교직 수행능력 측정 · 창의지성 : 유연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융·복합적 역량을 갖춘 능력 · 교직 가치관 : 바른 교사상 및 교육적 가치관에 대한 생각 · 상호 협력 : 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서로 간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문항 유형	· 심층 면접형
면접 절차	· 대기실 ⇒ 준비실 ⇒ 면접실 ⇒ 귀가
면접 시간	· 1개 조당 25분 내외
유의 사항	· 면접 질문은 구두로 단 1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때문에 집중해야 함.

질문과
답변
요약

■ **질문1 : 교사가 된다면 진행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수업이 있다면 무엇인가?**

- 저는 교사가 된다면 합창대회를 주최하여 진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에 재학할 당시에 4년 동안 합창부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다소 내성적이던 제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할 수 있었고 남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고 노래를 부르는 것에 흥미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 이 경험을 제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내성적인 성향을 띄는 학생은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강요하기 보다는 그 학생이 서서히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대에 서는 경험을 통해서 내성적인 성격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외향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협동하여 한 무대를 만들어보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사가 되어 합창대회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 **질문2 : 학생부종합전형의 장·단점과 교육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 제가 생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장점은 학생들의 재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종합 전형의 본 취지도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성적만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온 경험과 결과물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기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통해서 더욱 빨리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기에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앞선 학생의 의견처럼 또 다른 사교육을 조정할 수도 있고, 숙명여자고등학교의 사례처럼 비리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강사피체를 시행하고, 사건 발생 시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교육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현재와 같은 비중으로 수시와 정시를 두거나, 오히려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등교사라는 직업은 적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대학교는 성적이 높지 않다면 합격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례를 보았을 때, 학생의 적성보다는 여전히 성적을 많이 본다 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내신과 수능과 같은 성적보다는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학생의 초등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흥미를 파악하고 면접을 통해 적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의 면접처럼 서류만을 통해서가 아닌 얼굴과 얼굴을 직접 맞대고 이야기 해보아야 그 학생의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질문3 : 인공지능이 도래하더라도 인간교사가 사라지지 않을 이유와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인공지능이 도래하더라도 인간교사는 존립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전달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 아이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교감하는 것은 인간이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인공지능 교사를 초등학교 교실에 투입하였을 때, 아이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였으나 결국 인간교사를 찾았다는 기사를 보듯이 공강의 부분에 있어서 인간교사만이 아이들에게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는 한 사회이기에 아이들은 세계시민 의식과 리더십, 소통 능력을 학급에서 배우게 됩니다. 인간교사가 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에 따라서 교사에 요구되는 자질은 공강과 기다리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공감하며 아이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수준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아이들 각각의 성장속도에 맞춰 교사는 기다리고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교사에게 필요한 자세는 공강과 기다림의 자세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 면접이 분위기 비교적 자유로웠음. (지원자끼리 대화할 수 있었음.)
· 올해 처음 진행한 면접방식이었음.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부산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학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23일 오전	합격유형	최초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개요	면접형식 및 면접 인원 · 개별면접(지원자 3명-면접관 3명)		

평가내용	· 교과 적성 평가
문항유형	· 서류 기반 질문형
면접절차	· 대기실->면접실->퇴실
면접시간	· 25분
유의사항	·

질문과
답변
요약

■ 1. 미래에 교사가 되었을 때 진행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 저는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게임 만들어보기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정보시간 때 기초 코딩 프로그램인 '스크래치'를 활용하여 게임과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작은 코드 변화로도 새롭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러한 활동이 초등학생들에게는 창의성을 키우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활동을 여러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며 소통과 협력 정신까지 키워나가 미래의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학생들의 창의성, 소통, 협력 정신을 길러주고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기회까지 이어지는 코딩 프로그램을 꼭 시행해보고 싶습니다.

■ 2. 교육대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교육대학교에서는 어떤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할까요?

-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는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교사로서의 자질과 경험을 쌓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은 학업적인 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봉사, 간부 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소통방법과 교육 가치관을 확립하고 교사로서 자질이 있는지의 고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사로서 사명감을 다지고 더 나은 교사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작은 시간 내에 학업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도 신경써야 하는 만큼 학생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육대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기간 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봉사, 교육 기사 작성, 멘토링 등의 활동을 통해 교사로서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고 생각했던 계기가 되었고 이는 큰 경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교사의 자질을 쌓아나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초등교사라는 직업이 존속할까요? 이를 위해서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큰 자질은 무엇인가요?

-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교사라는 직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의 다양한 역할은 변화되었지만 저는 초등교사라는 직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존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사는 학업적인 면보다는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전인교육을 실현해야 할 것이고 이는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다원화되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간 교사가 그 학생의 특성과 재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인공지능과 인간교사가 결합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큰 자질은 수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의 수용성은 2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1번째,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받아들여 더 새롭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는 수용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 방식과 기술을 받아들여 접목시킬 수 있는 수용성입니다. 이러한 수용성과 학생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열정이 결합된다면 학생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멀리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인재들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산교육대학교에 입학한다면 이러한 자질들을 쌓고 더 나은 교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부산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학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23일 오전	합격유형	최소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초등교직적성자전형

면접개요	면접형식 및 면접인원	· 집단 면접
	평가내용	· 지원학과 관련 전공 지식과 교직 적인성 평가
	문항유형	· 심층면접
	면접절차	· 대기실 → 면접실 → 퇴실 · A-B-C, B-C-A, C-A-B 순서로 각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저는 C였습니다)
	면접시간	· 원래 25분이지만 기본적인 질문 답변이 끝나면 시간이 남아도 추가질문 없이 종료됨. · 한 질문 당 주어진 시간은 2분이며, 시간이 지나면 답변을 끊음.
	유의사항	· 평가요소 중 상호협력이 있기에 다른 지원자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함. ·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한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하는 연습을 하기.

질문과 답변 요약	<p>■ 질문1 : 학생들의 창의력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p> <p>- 저는 일관적인 답이 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질문에 답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에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보다는 답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이런 문제가 다양한 답변을 저해시키고 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보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중 한 사례로, 저는 예술에 관련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그림을 놓고 아이들에게 각각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어떤 아이는 '무슨 도구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는가'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작가는 무슨 생각이나 감정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술은 하나를 가지고서도 수많은 측면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학생들은 일관된 답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익숙하게 되어 보다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 질문2 : 교육불평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말해보세요.</p> <p>- 이 질문을 들으니 저는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던 '자사고 폐지'의 문제가 떠오릅니다. 자사고는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지만 자사고가 원래 설립 목적에서 이탈하여 대학 입학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으며 학생들의 교육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사고가 교육불평등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두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자사고에 다니지 않으면 질 좋은 수업을 받지 못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극단적으로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더 다양한 교육 기회와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곳에서든지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수업을 제공하겠다는 선생님들의 마음가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질문3 : 교실에 cctv를 설치했을 때 좋은 점을 말하고, 설치하지 않아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p> <p>-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시기에는 누구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학생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의할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수업을 대충하지 않고 학생들을 좀 더 꼼꼼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그 의식 하나만으로도 수업의 효과가 좀 더 커지는 것입니다. cctv 없이도 이런 문제는 성장기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과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공개수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잘 사용하는 유튜브의 생방송을 이용한다면 선생님의 질 좋은 수업 진행을 유도할 수 있으며 부모들도 아이들의 수업에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기타 특이사항	· 면접 자료집에 '추가질문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어 당연히 추가질문이 있을 줄 알았고 별도의 추가질문 없이 면접이 종료되었을 때는 적잖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다른 조들을 보았을 때도 추가 질문이 있던 조는 없었습니다. 부산교대는 면접이 옛날에 비해 많이 간소화된 느낌인 것 같아요. 교육과 실제 교실 상황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다면 큰 어려움 없이 면접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부산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학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23일		합격유형	최초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초등교직적성사전형
면접개요	면접형식 및 면접인원	· 집단 면접, 면접관 3명, 지원자 3명		
	평가내용	· 교직 관련 질문 3가지, 숙고시간 없음		
	문항유형	· 단순질문형		

면 접 절 차	· 단체대기실-면접실 앞 대기-면접실-퇴실
면 접 시 간	· 질문당 개인에게 2분 이내 시간 줌 (총 25분 내외)
유 의 사 항	· 이번에 전국 교육대학교가 한달 한시에 쳐서 결시자가 많았음. 따라서 가번호 부여받아도 순서가 밀릴 수 있음. 질문 1번은 1-2-3, 2번은 2-3-1, 3번은 3-1-2 순서로 답변. 숙고 시간 없음.

질문과
답변
요약

- **질문1 : 우리 교육에서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말해보세요.**
 - 우리 교육에서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지식 주입 위주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 도래로 인해 로봇, 컴퓨터들이 인간을 대체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의성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만큼 창의성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 다른 요인은 교과과 학생 인권의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나머지 교사가 학생에게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인권을 보장받을 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교사를 존중할 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질문2 : 우리 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또 해결방안도 함께 말해보세요.**
 - 교육 불평등은 사교육의 격차에서 비롯되는 지역별 편차가 큰 데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학원이 즐비하고, 유명한 강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은 이러한 학원의 수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유명한 강사들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사교육의 질과 양의 차이에서 교육 불평등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은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방법을 3가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수업 시간 내에 수준별로 학습지를 만드는 등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창의적인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에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학습 부진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학습 부진아는 먼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 가정환경, 선수 학습에 대한 부진이 대표적 이유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 가정환경 같은 경우에는 병원 및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선수 학습이 부족한 경우는 학부모와 충분히 상담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점심시간,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수준별 학습지를 제작해주거나, 또래교사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끼리 올바른 학습 관계를 만드는 방법 등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 **질문3 :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했을 때의 장점을 말해보고, CCTV를 설치 않아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말해보세요.**
 - 먼저 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되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절도 사건 등이 일어났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CCTV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자신의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 지 알기 쉽지 않은 학부모와 CCTV를 통해 아이들의 문제행동, 학습 습관 등을 적극적으로 피드백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도덕 인성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남을 돕고, 서로 양보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도덕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도덕인성교육을 한다면 함께 협력해나가는 올바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전주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16일 오전	합격유형	최소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위주(교과)	전형명	고교성적우수자전형
면접개요	면접형식 및 인원	· 개별면접(지원자1인-면접관3인)	
	평가내용	· 일반교양 및 교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문항유형	· 제시문 교양1개 교직1개	
	면접절차	· 대기실→복도에서 준비→숙고실→면접실→퇴실	

	면 접 시 간	· 지워자 1인당 3~4분 내외
	유 의 사 항	· 교직/교양 각각 2개씩 뽑고 “제시문 보고 난 뒤”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제 도우미분께서는 모르셨는지, 제시문을 못보고 뽑게 했습니다.ㅠㅠ (보고 안보고 차이 큼니다ㅠ)
질문과 답변 요약	■ 이름 ○○○ 맞나요?	- 네 맞습니다. 교양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시문1 : 최근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할로윈데이 행사가 많다. 이의 장단점을 말해보시오.	- 답변1 : 장점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서 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어울려 화합할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개성을 다른사람들에게 표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와 사람 간 통합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외국에서는 할로윈데이 행사가 가족행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젊은세대 중심으로 즐기다 보니 파티나 술 등 유흥으로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서 할로윈데이의 목적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제시문2 :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초등교사와 중학교교사를 통합하는것에 대한 장단점을 말해보시오.	- 답변2 : 장점은 먼저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초등과 중등교원을 통합하면 예산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초등교사는 전과목을 가르치고 중등교사는 한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칩니다. 또 중등교육과 달리 초등교육은 좀 더 생활습관과 인성 및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는 교대와 사범대를 나오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배운 자질이나 내용이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특이사항	· 저는 면접 입실하고 1시간만에 끝났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 면접관님이랑 거리가 1미터도 안됩니다. 책상 하나 두고 마주보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자기소개 하지 말라고 하시고 바로 질문에 대답하라고 하셨다.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진주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03일 오후		합격유형	최초합격
전명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개요	면접형식 및 면접인원	· 면접관 3명과 지원자 1명의 개별면접 · 면접관 3명과 지원자 5명의 집단면접 · 교직적인성파악 (OMR)		
	평가내용	·		
	문항유형	· 심층 면접		
	면접절차	· OMR-대기-개인면접-대기-집단면접-대기-일괄퇴실		
	면접시간	· 개인 면접 10분 집단면접 50분인데 30분안으로 하고 끝남.		
	유의사항	· 대기시간에 개인자료 보지 못함.		

질문과 답변 요약	(긴장푸는 질문 좀 하다가)	
	■ 질문1 : 학생이 생각했을 때 생기부에서 나올법한 질문들 준비했었죠? 뭐였어요?	- 논문탐색대회 나갔던 거 이야기했습니다.
	■ (꼬리질문) 그럼 학생은 책과 교과서 중에서 어떤 걸로 수업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나요?	- (논문 분석결과 인용해서 책을 중심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의 절차와 지도방안을 따라가야한다는 점과 마냥 교과서가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아님을 이야기했었습니다.)
	■ 질문2 : 학생은 성형 하고 싶은지? 할 생각 있는지 (당황해서 답한 거 자세하게 기억이 안나요)	- 답변2 : 아 저는 성형하고 싶지 않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
	■ (꼬리질문) 그럼 학생 친구들도 다 그렇게 성형 생각이 없나?	- 성형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
■ 질문3 : 학교 다니면서 억울했던 경험은?	- 답변3 : 머리카락이 곱슬곱슬 심해서 파마한 것으로 계속해서 오해받았던 것이 억울했었습니다. 하지	

만 선생님께 파마하지 않았고 물을 물힌 것을 보여주면서 선생님과 계속 이야기하니 선생님께서도 이해해주시면서 소통으로 해결했었습니다.

■ **(꼬리질문) 학생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염색을 하는지, 학생은 한 적이 있는지**

- 방학 때는 염색을 한 친구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하지만 방학이 끝난 후에는 다들 다시 머리를 풀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 짙은 색을 한 번 했었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 **질문 4 : 예체는 중 자신이 가장 자신있는 것과 자신 없는 것 1가지씩 (공통질문)**

- 답변4 : 제가 가장 자신있는 것은 색조합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미술 선생님께서도 미술 작품을 보면서 색을 잘 조합하고 어울리게 활용해서 미술 작품이 더 잘 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나 색깔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자신있습니다. 가장 자신없는 것은 체육시간 팔힘을 활용하여 던지는 활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팔 힘이 없어 던지는 것이 힘이 들어 자신은 없었지만 노력하고 최대한 연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꼬리질문) 그러면 (빈원을 그리시더니) 이 원에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로 칠하고 이유와 어떤 반을 만들지 이야기해보세요.**

- 네, 저는 밝은 하늘 색을 칠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때 날씨가 좋은 맑은 하늘 날 더 아이들이 잘 나가고 잘 놀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반에, 학교에 오는 것이 마냥 싫고 지루한 곳이 아니라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활기차게 즐길 수 있는 느낌을 줘 아이들이 청량하고 맑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반을 만들고 싶습니다.

■ **질문 5 : 학교 생활 내의 갈등상황이 있었겠요? 말해주세요**

- 답변5 : 수학여행 때 어디로 놀러갈지에 대해 친구들과 나누면서 심한 다툼은 아니지만 의견대립으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저와 다른 친구는 사진을 찍는 것을 위주로 두기보다는 놀러가는 것을 위해 예술관보다는 카페등을 가기를 원했고 다른 친구들은 예술관에 가자고했습니다. 꾸준히 저희끼리 이야기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사진만 이쁘게 찍으면 되는 것이 목적임을 깨닫고 분위기가 좋고 이쁜 가게나 카페등을 가서 사진을 많이 찍자고 의견을 제시했고 서로서로가 한 발자국 배려해주면서 갈등을 극복했습니다.

■ **질문 6 : 학생이 교사가 되었다고 가정할게요. 교사가 되었는데 학생의 반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났고 가해자 학부모님이 자기 자식의 말만 듣고 지금 학생한테 화를 내면서 전화하고 있어요 학생은 어떻게 할 건가요?**

- 답변6 : 저는 가장 먼저 한쪽에서 화가나 있다면 제대로된 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학부모님의 화를 누그러뜨릴 시간을 드릴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 우선 진정이 되시면 전화를 다시 달라고 이야기하거나 우선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조금 후 다시 연락을 들인다고 하고 학부모님이 진정할 시간을 줄 것 같습니다. 그 후 아이들과 상담을 한 노트를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등과 소통을 통해 어느정도 해결해나가고 싶습니다.

■ **마지막말 준비해왔요? 10초 남았는데 간략하게 해보세요**

- (준비해간대로 했고 좋치고 좀 많이 더 말했는데도 안 끊고 들어주셨어요.)

기타 특이사항

· 평범한 진주교대의 집단면접이 아니라 저는 토의 없이 개인발표-의무적으로 질문 1개하고 답하기- 교수님 질문 답하기 순으로 진행되어 당황했었습니다.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진주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03일 오후		합격유형	최초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개요	면접형식 및 면접인원	· 혼합형(개별면접, 집단면접)		
	평가내용	· <개별> - 긍정적 자아개념, 교사로서의 자질, 전문성과 발전가능성 · <집단> - 발표력, 표현력, 수용력, 사회성		
	문항유형	· <개별> - 기본소양평가, 교과적성평가 · <집단> - 제시문 기반 심층 면접형, 발표 및 토의		
	면접절차	· • 대기실 → 적인성 검사실 → 개별 면접실 → 집단 토의실 · (면접 조마다 면접 절차의 순서 다름)		
	면접시간	· <개별> - 10분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 - 지문속고시간(15분), 개별 발표 포함 토의(50분) · ·수험번호·성명·출신고교, 출신지역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층면접 실시 · ·고등학교를 구별할 수 있는 교복착용 금지 · ·수험표, 신분증 지참 · ·다른 수험생과 대화 금지
--	---

질문과
답변
요약

■ **긴장 많이 되나?**

- 아무래도 첫 면접이다 보니 좀 많이 긴장 됩니다.

■ **초등 교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무엇인가?**

-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보며 초등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저희 보다 일찍 오셔서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교실에서 한결같이 맞아주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것은 저도 친구들도 학교에 오는 것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아침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등 저희와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가까워지려고 하시는 선생님의 진심은 제가 초등 교사를 마음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 **봉사활동은 많이 했는데 학업도 챙기며 하기에는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시간 관리 면에서 힘든 점은 없었나?**

- 네.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적으로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중학교 친구와 함께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봉사활동을 즐기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 **교사가 안정적이라는 장점만 보고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판별하고 가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우선, 인성이라는 부분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겉모습만으로 판별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수업을 하며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 교사의 내면적인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 **흠.. 그것만으로 될까? 다른 방법 없나?**

-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5초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료교사 위어서 말함.)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봐라.**

- 네. 저는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회영 선생님께서는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회영 선생님께서 이 질문을 자신의 일생으로 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을 던져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삶을 던져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초등교사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초등교사라는 제 꿈에 다가가기 위해 진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해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특이사항

· 집단면접에서 어느 정도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 마무리되고 토의가 깊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토의에 관련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 새로운 논제를 던져서 토의가 심화적인 내용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함.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진주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03일	합격유형	최초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개요	면접형식 및 면접인원	· 개별면접(10분)-교직적인성시험(50분)-집단면접(50분), 토의형식으로 집단면접 진행 · 개별면접 : 3(면접관)대 1(학생) 집단면접 3(면접관)대 6(학생)	
	평가내용	· 학생부나 자소서는 많이 보지 않는 편. 제시문 위주.	
	문항유형	· 교직적인성시험, 제시문 위주 집단면접	
	면접절차	· 대기실-개별면접(10분)-교직적인성시험(50분)-집단면접(50분)	
	면접시간	· 개별면접(10분)-교직적인성시험(50분)-집단면접(50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청 따뜻한 분위기. 재학생 선배님들이 긴장풀어주시고, 물도 주심. · 개별면접 면접관과 집단면접 면접관이 같은 분들임! · 집단면접에서는 똑부러지는 발표자세와 내 의견 피력보다는 소통과 공감의 자세. 		

질문과
답변
요약

개별면접) Q(a)여자교수님, 온화하시고 눈마주치면 웃어주심 Q(b)남자교수님, 분위기 풀어주시고 주로 면접을 이끄셨음 Q(c)남자교수님, 계속 얼굴 찡그리시고 시비걸 듯이 말하셨음(압박면접 컨셉인 것 같았어요!)

- Q(b) : 진주교대 둘러봤어요?
- 네! 아침에 조금 둘러봤습니다.
- Q(b) : 어때요? 좀 다니고 싶어요?
- 네, 학교가 깨끗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라 너무 너무 다니고 싶습니다.
- Q(c) : 됐고, 자기소개부터 시작해봐요.
- 자기소개 준비한 것 함.
- Q(b) :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그 이유?
- 수학을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으로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함. 수학은 원리파악에 집중하면 여러 방면에 활용가능하고 명확한 과목이라서, 음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과목이라서라고 대답함.
- Q(c) : 그럼 대학교 오면 어느 과 가고 싶음?
- 음악교육과에서 음악을 심층적으로 배우고 다른 과목과 융합하여 아이들의 학습흥미를 높이며 가르치고 싶다고 함
- Q(b) : 수상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비전발표대회. 꿈에 대해 정확한 목표를 찾았고 비전 얘기함.
- Q(a) : 학급임원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 학급 왕따 얘기
- Q(b) : 마지막 할말?
- 준비했던 내용
- 집단면접 제시문 : 시의 발전에 따른 교사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내용
- 교사의 역할은 지식전달보다는 인성과 창의성을 담당하는 전인교육이라고 함.
- 다른 학생들은 감성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다가 Q(c) 교수님에게 혼남.

기타
특이사항

· 압박 면접이거나 면접 중 혼나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고 집중해서 대답하는 게 중요함.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진주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03일 오후		합격유형	최초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개요	면접형식 및 면접인원	· 개별면접 (지원자 1명 면접관 3명) + 혼합형 면접(제시문 참고)		
	평가내용	·		
	문항유형	· 생기분위주(개별)		
	면접절차	· 개별면접-대기-교직 인성 검사-집단면접		
	면접시간	· 15분내외 (개별)		
유의사항	·			

질문과
답변
요약

- 질문1 : 밥 먹고 왔나요?
- 긴장되어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 **질문2 : 1분 자기소개 해보도록 하세요**

- 제 영어 이니셜인 sejr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 smile 저는 늘 밝은 미소로 전교 부회장으로써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저희 학생회의 활동을 강의 하였습니다. 또한 주위 친구들의 모르는 문제들을 가르쳐주었습니다. e enjoy 저는 늘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며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경험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j join 저는 모든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평상시 가보지 못했던 독도캠프, 일본 맛쇼교 교환학생, 과학영재캠프 활동을 하였습니다

■ **질문3 :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 두가지를 말하고 이유를 말해주세요**

- 저는 첫 번째로 수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합니다. 한가지 답을 구하기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나만의 풀이방식을 찾아 주위 친구들에게 가르쳐주었을 때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논술대회에 나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때도 풀이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껴 3년간 2위라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육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때부터 중학교때까지 테니스 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인해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체육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육시간에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거나 축구를 하며 땀을 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질문4 : 학생의 성적표를 보니, 되게 우수한데 3학년때 사회문화 2등급이 하나 있네요? 그때 심정을 말해주세요**

-3학년 1학때 사회문화 성적이 2등급이 나온 이유는 수행평가에서 제가 간결한 풀이방식을 적는다고 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생략과정이 많아져서 감점을 크게 받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왜 감점을 받은지 2등급을 받는데 할 고있었기 때문에 덜 낙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에는 더욱 사회문화를 공부해서 다시 1등급을 받았습니다.

■ **질문5 : 이렇게 우수한 학생은 서울로 올라가서 학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데 왜 초등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건지. 초등교사는 어떻게 보면 꽤 막힌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학생이 원해서 하는거라던 상관 없는 일이지요**

- 저는 테니스 선수를 그만두고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찾은 뒤 오직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학자의 길을 걷는 것도 좋은 길이지만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진주교대에 지원 하였습니다. 제가 왜 진주교대에 오고 싶은지 2가지 장점을 말해..(면접관님이 괜찮다면서 끊으심)

■ **질문6 : (다른면접관님께서) 그럼 진주교대 장점 2가지를 말해봐요**

- 첫 번째로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교대에서는 학생들에게 짜여진 시간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교대에서는 학생들에게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을 듣게하여 수업의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주교대 장학 시스템은 전국 교대의 1,2위를 다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대학교로 올라와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진주교대를 지원하게되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2020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진주교육대학교	학과(부)	초등교육과
면접일시	2019년 11월 03일	합격유형	충원합격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형식 및 면접 인원	· 인*적성검사(감독관 한 분, 보조 도우미 두 분) + 개별 면접(면접관 세 분) + 집단 면접(면접관 세 분)		
평가내용	· 얼마나 경청하고 다른 지원자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수 있는지? ·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지? ·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미래에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있는지?		
문항유형	· 개별+집단 면접		
면접절차	· 대기 OT + 인*적성 검사 - 대기 후 이동 - 개별면접 + 대기실 대기 + 집단면접		
면접시간	· 인*적성 검사(50분) + 개별면접(10분) + 집단면접(50분)		

유의 사항

· 레디큐 대학생 도우미 형, 누나들께서 너무 진행 잘해주셔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면접할 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서 안 떨고 대답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도 기본적인 소양 많이 물어보시고, 잘 웃어주시면서 학생들 편한 분위기에서 면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자신이 교사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름, 학교 등 말하면 안됩니다.

질문과
답변
요약

- 안녕하십니까?
- **어서 와요. 자리에 앉아요.**
- 감사합니다. ㅎㅎ
- **오는 길에 안 힘들었어요?**
-네 ㅎㅎ 조금 날씨가 추웠던 것 같습니다.
- **진주교대에 오면서 뭘 볼 수 있었나요.**
- 많은 나무들과 진주교대 하수구에 진주교대 로고가 박혀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하하. 하수구도 보고 왔나요.**
-네;; ㅎㅎㅎㅎ
- **진주교대 말고도 대구교대에 지원했을 것 같은데 대구 교대에 갈 거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저는 진주교대에 무조건 올 것입니다. 대구 교대에 원서를 넣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입시 원서 5개를 쓰고 한 장이 남았는데 마지막 날 넣을 수 있는 교대가 대구 교대밖에 없어서 대구 교대에 지원했습니다.
- **그럼 대구교대 말고는 다른 교대 어디 썼습니까?**
- 서울, 부산, 진주, 대구교대를 썼습니다.
- **그러면 서울 가겠네?**
-아닙니다. 저 변읍...(이름 성 말할 뻔 했습니다.)본인은 경남, 부산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훗날에 교사가 돼서도 부산과 경남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 **그럼 뽑아주면 꼭 와야 합니다.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애들이 많아서 말이지;**
-넵. 저는 무조건 진주교대에 올 것입니다.
- **그럼 진주교대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진주교대가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표는 학생들이 조금 더 낮고 효율적인 수업을 받도록 연구하고 제 시간을 쏟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주교대의 장학금은 제가 학비 걱정 없이 학생들을 위한 연구나 교수법 고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울 것 같습니다.
- **우리 학교가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긴 하지.**
-아까 밖에서도 선배님께 다양한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어떤 장학금 제도였지?**
-이공계 장학금입니다. 저 이과입니다. ㅎㅎ
- **이공계장학금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많으니 나중에 잘 찾아봐요.(이 부분 질문이 잘 기억안납니다.)**
- **그럼 학생이 진주교대에 온다면 어느 과에 가장 가고 싶은가요?**
-저는 수학교육과를 갈 것입니다.(하;; 이유를 설명 안했습니다...)
- **(질문이 정확히 기억이 잘 안됩니다.) ‘대한민국 교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떤 점에서 교사가 매력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어린이집을 다녔을 적 가정불화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당시 갑자기 폭력적이게 아이가 변했다고 선생님께서 어머니께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 뒤로 하고 계시는 일을 그만 두시고 제게 모든 관심들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다시 선생님께서 제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안도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사의 작은 관찰과 세밀한 분석으로 아이들의 행동변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자 다짐했습니다.
- **어릴 때의 가정불화가 기억이 나나요?(엄청 안쓰러운 표정으로 봐주셨습니다.)**
-네. 어렸을 적이지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 교사가 학급에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많은 회의감(다른 단어였는데 기억이 안남)과 보람을 느낄 것 같은데 지원자는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첫 번째로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는 학생들이 난폭한 행동이나 일탈적인 일들을 할 때 내가 교육을 잘못 실행했기에 아이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라는 회의감(확실히 다른 단어인 것 같다.)이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나서 선생님께 찾아오면서 자신의 성적 향상이나 잘 지내고 있는 근황들을 말해주는 것을 듣는 것이 가장 보람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6학년 때 초등학교 선생님과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항상 저희의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근황을 알게 되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3년 동안 인문학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어떤 인문학에 가장 관심이 있나요?

- (나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잘 몰라서;;)네 저는 조선왕조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인문학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조선왕조실록을 읽고 고등학생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책 출판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 그럼 역사학이네요?

- (올려서 잘 안 들려;;)네?

■ 학생이 인문학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역사학이네요?

- 네 맞습니다.

■ 그러면 인문학을 초등학생들에게 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 (아무 생각 없이 교수 방법적인 측면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네 저는 인문학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사 용했던 토론 방식들이 아이들에게 매우 필요한 자질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자질은 협업 능력입니다. 하브루타 방식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서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비판, 동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협업의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 소외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인문학 공부를 한다면 이런 부분도 좀 완화될 것입니다.

■ 음.. 지금 지원자가 말한 건 교수 방법적인 측면인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줄 수 있나요?

- 아... 네! 저는 인문학 교육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힘을 길러준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며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어떤 방식으로 순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만 있다면 미래를 내다보고 더 나은 사회의 인재로서 영위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아마 이렇게 답변 안 하고 떨면서 절었던 것 같습니다.)

■ 학생의 특기가 있을까요? 예체는 분야 쪽으로 해서

- 저는 면접관님들께 배우와 배드민턴을 잘한다고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임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급 속에서 배구를 체육 활동으로 하면서 리베로 역할을 맡았고, 친구들에게 리시브를 넘겨줄 때 희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메이커 교육'이 요즘 도입되고 있는 교육이죠?

- 네 맞습니다.

■ 우리 진주교육대학교에서 교대 중에서 최초로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에 있는데 알고 있나요?

- 저는 거기까지 공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후에 뒤에 문장 말하려다가 교수님 질문 끊어버렸습니 다... 교수님께서 양보해주셔서 답변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진주교육대학교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신설된다면, 진주교대에 올 이유가 더더욱 생긴 것 같습니다.(여기서 교수님들 막 웃으셨습니다.)

■ 그럼 제가 학생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거예요?(옆에 교수님들 웃으셨습니다.)

- 넵 ㅎㅎㅎㅎ
(좋이 똥 하고 울림 아마도 1분이나 10분이 지났다는 종인 듯.)

■ 그럼 지원자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 제가 진주교육대학교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여기서 좀 많이 절었음)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진주교육대학교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아이들을 위한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중에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인다!

5.0

면접지도 길라잡이

「보인다! 시리즈」

- 보인다! 1.0 과목선택을 위한 과목·전공 안내서
- 보인다! 2.0 고등학교 교육과정·진로·진학설계
- 보인다! 3.0 한눈에 보는 수시전형
- 보인다! 4.0 학생부 종합전형 사례집
- 보인다! 5.0 면접지도 길라잡이**
- 보인다! 6.0 한눈에 보는 정시전형
- 보인다! 7.0 고등학교 교육과정 진로·진학 모바일
- 보인다! 8.0 진로·진학 Q&A 100선
- 보인다! 9.0 전공별 대입전략 로드맵
- 보인다! 10.0 진로상담 사례집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경인교육대학교	학 과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 형 명	21세기형교직적성자전형	
면접	면접 시간	개별: 10분 / 집단: 35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면접 절차	개별: 혼자서 면접위원 2명과 문답. 집단: 학생 5명이 함께 실시.		
면접	특징	▪ 개별 면접 시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전공 및 일반 소양 면접이 이루어짐.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개별면접] (집단면접 내용은 생략)				
Q: 지원자가 생각하는 초등교사의 자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전문성과 대인관계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학교 담임선생님께서 말씀 부리는 아이들과 더 친밀하게 지내시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진로 체험 프로젝트로 대학탐방을 갔을 때, 재학생 멘토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유가 '래포'를 형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교에 오지 않던 아이들이 등교시간에 맞춰 오기 시작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교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이해하며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이 많은데, 엘리트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수월성 교육에 동의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한 분야의 지식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창의융합형 인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는 그러한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지정&폐지 논란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선택권을 다양화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자기소개서에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고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부연설명해주세요.				
A: 집집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찾아 문을 두드렸지만 외부인에게 배타적이셨습니다. 그러나 소록도에 관해 공부하면서 일제강점기에 병원장들이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미명 아래 한센인들을 착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겪어온 과정을 이해하고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 아이의 가정환경이나 성장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Q: 고등학교 시간 동안 학급 임원 활동을 했는데, 지원자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요?				
A: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솔선수범입니다. 1학년 때, 반장으로서 가정통신문을 수거하고 청소 시간에 역할을 부여하는 등 반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매번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거 친구들의 좋은 마음가짐이나 본받을 만한 점이 있으면 따라하곤 했고 제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반 친구들에게 말하기보다 솔선수범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청소시간에 반 아이들을 지도하느라 청소구역이 없었지만, 청소시간이 되면 더러운 곳을 스스로 찾아 청소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아이들은 하나 둘 변해갔고, 리더십은 지시나 명령으로 공동체를 이끌어나가는 능력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 태도나 신념,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추후에 학교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주우라고 말하는 교사가 아닌 먼저 휴지를 줍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공주교육대학교	학 과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 형 명	지역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면접위원 수	
면접 절차	집단토론 후 개별면접		
면접 특징	▪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집단토론]			
Q: 인터넷실명제 시행 찬반에 관한 질문			
A: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해야한다. 최근 유명연예인이 악플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국가적 차원과 교육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답변함.			
[개별면접]			
Q: 저출산 시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A: 국가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나면 저출산이 해결될 것. 그 다음에 이민자를 유입에도 충분하다고 대답함.			
Q: 하지만 이미 정부는 많은 정책들을 시행해왔지만 실패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A: 그래도 자국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국민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야한다.			
Q: 학교 교육은 학교에 초점을 맞춰야하나,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하나?			
A: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하기 때문에 학교에 초점을 맞춘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공주교육대학교	학 과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 형 명	지역인재전형
면접	면접 시간	30분(집단20분/개인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면접 절차	준비시간 각 질문 당 3분, 5인 집단 토론 후 개인 면접		
면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 주제로 3분간 필기구 없이 생각 정리 후 발표 ▪ 견해 발표시 긍정, 부정적 측면 - 해결 방안 - 자신의 견해 순으로 발표하기 ▪ 집단 토론시 경청의 자세와 열려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느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집단토론]</p> <p>Q: 인터넷 실명제 찬반</p> <p>A: 반대 의견 선택. 개인의 자유 침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단점.</p> <p>[개별면접]</p> <p>Q: 온라인 산업의 발전과 확대에 대한 견해</p> <p>A: 긍정적 변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는 점 부정적 변화: 획일화와 상업화, 자극적인 소재들의 증가 등</p>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광주교육대학교	학 과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 형 명	농어촌학생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9~10분(+1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면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관과의 거리가 가까웠다. 단, 면접관분들 각각이 생각보다 떨어져 앉아 계셨기 때문에 시선 처리에 유의해야 될 것 같다. ▪ 기본적인 생기부 질문이 대다수였고, 추가질문이 많진 않았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1				
<p>Q: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3년 동안 꿈이 쪽 초등교사였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해주고,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초등교사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주세요.</p> <p>A: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인교육을 기반으로 한 초등교육의 매력이 제가 지금까지 초등교사라는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초등교육은 담임제 교육을 기반으로 한 통합교육을 진행하며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지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작고 소중한 재능이 큰 꿈나무로 성장하는 과정을 돕는 직업이기에 매력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잠재력을 함께 개발하기 위해 아이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소통하며 학부모와의 연계를 통해 아이의 잠재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저는 초등교사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초등교사는 전문성의 덕목(자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 ÷ 등의 기본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초등교사라면, 초등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등교육은 지식교육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잠재성교육, 창의력교육, 체험활동, 독서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발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Q: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는 교육환경’에 대해 과제연구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맞나요? 어떤 환경인지 설명해주세요?</p> <p>A: (요건 자세히 기억이.. 안나요..) 네,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6년이 된 제 친구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초등학교는 어떤 환경인지 궁금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행복했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함께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것이 기억에 남았고, 자신이 한 사소한 행동인 ‘인사를 잘하구나, 편식을 하지 않네, 옷을 단정히 입고 있네.’ 와 같이 일상 속에서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p>				
<p>Q: 아, 여기서 말한 교육환경이 교실의 교구를 놓는다거나 이런 교실의 환경을 말하는 건줄 알았는데 아니네요?</p> <p>A: 네 제가 말한 교육 환경은 교실의 분위기를 의미합니다. 교실의 환경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2

Q: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어렵거나 불편했던 점이 있으면 말해 주고, 좋았던 점(이런 낱말의 단어였는데...)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A: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을 지닌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배려의 자세를 기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되니 약간의 제약이 있어 어렵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실을 사용해야하는데 컴퓨터실을 사용할 수 없는 교시이면 그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제약이 불편했고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외출증, 외박증을 챙겨 쓰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며 인간관계를 많이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동생들과 친해지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동생 1명, 1학년 동생 2명과 함께 방을 쓰며 서로 고민도 나누고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때 먼저 말해달라고 얘기하며 제가 3학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생들이 불편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협력하며 일을 함께 해결하며 문제 상황을 함께 해결해나갔습니다.

Q: 학생의 생활기록부 중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면 여러 활동을 했는데 동아리도 그렇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해주겠어요?

A: 네 저는 작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창의, 인문 캠프 교육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수업 실연을 진행해본 후 흥미 있는 수업을 직접 해보고 싶어 교육봉사 기관에 문의를 하여, 교육봉사 장소를 제공받은 후 수행했던 봉사활동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2주 동안 8살~ 10살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한 아이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아이는 만화를 무척 좋아하여 만화영상을 보고, 그림을 잘 그리는 등 미술적 소질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진 꿈이 만화가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수학 도형으로 만드는 모빌 만들기 수학 캠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와는 관련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여 수업 참여를 거부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이와 함께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함께 아이를 수업에 참여시킬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10분 타이머 울림~~~) 아... 네...(멈칫하다가) 그래서 어... 웹툰 마음의 소리에 등장인물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타원 등 기본 도형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고 아이에게 조석 작가의 마음소리 웹툰을 보여주며 아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술에서는 밑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보면 도형을 이용하여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미술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함께 공부하면 좋은 만화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며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아이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기서 뿌듯했던 점은 아이가 자신이 만든 모빌에 달린 도형에 조석 작가님처럼 얼굴을 그려 보여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통해 미래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이 흥미있어하는 분야를 활용하여 교과목과 연결 짓는다면 아이들의 흥미를 높이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봉사였기에 기억에 남습니다.

Q: 수고했어요.

A: 감사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부산교육대학교	학 과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 형 명	초등교직적성자전형	
면접	면접 시간	15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면접 절차	입장 후 주의사항을 들은 후 3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퇴장		
면접	면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은 단 한 번만 들려줌. ▪ 각 대답 당 2분을 초과해서는 안 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p>Q: 우리나라에서 창의성을 저해하는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이야기해 보시오.</p> <p>A: 우리나라에서 창의성을 저해하는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수업 모형은 PBL이라고 생각합니다.</p> <p>Q: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교육 불평등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해 보시오.</p> <p>A: 지역 간 누릴 수 있는 교육의 차이, 예를 들어 디지털 교과서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p> <p>Q: 학교 내 CCTV를 설치했을 때의 장점과,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다양한 문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해 보시오.</p> <p>A: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사는 소수이고 학생은 다수이기 때문에 소수가 다수를 일일이 다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을 CCTV를 통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쉬는 시간 입장지도, 또래 멘토링, 아이들에게 공동체 의식 심어주기와 같은 방안으로 다양한 문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부산교육대학교	학 과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 형 명	초등교직적성자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15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특징	▪ 질문 딱 3개 (꼬리질문이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Q: 창의지성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보세요.			
A: 첫째, 미술시간이용. 자신이 특정한 장소에 와 있다고 상상. 신문지를 이용해서 장소의 특징을 살려서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 둘째, 플립러닝 이용. 준비된 영상보고 와서 수업시간에 내 생각과 다른 친구의 생각 공유 → 사고의 확장			
Q: 교육 불평등 사례와 그 해결방안까지 말해보세요			
A: 일반고, 특목고 차별문제. 특목고는 일반고와 달리 학교 내에서 정한 특정한 커리큘럼대로 운영 → 전체적으로 보면 균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 일반고화 정책을 계속해서 밀고나아가야 할 것 >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체제 안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Q: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교실 CCTV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이유: 교사와 학생이 카메라를 의식하여 서로 간에 진실된 교육이 일어나지 않을 것. 또한 CCTV가 교사의 평가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 CCTV를 설치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요새 이슈 되었던 아동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교실 안보다는 밖에 CCTV를 달아서 학부모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이를 근거로 교실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서울교육대학교	학 과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 형 명	교직적성우수자전형
면접	면접 시간	제시문 7분 + 면접 10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면접 절차	제시문(2개) 7분 > 면접 10분		
면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기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공지됐지만 본인에게는 하지 않음. ▪ 제시문 면접은 기출을 활용해서 많은 연습 필요 ▪ 1차가 2배수인 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제시문 면접]				
제시문1)				
Q: 해당 사진을 보고 문제점을 찾으시오				
A: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언급하며, 이 사진에서 나타난 시험은 형식적 평등만을 강조할 뿐 실질적 평등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음.				
Q: 그렇다면,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한 후) 저는 모든 동물들이 자신이 유리한 종목을 선택한 후, 이 종목들에 모두가 참여해서 나온 점수를 종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유리한 종목과 불리한 종목을 모두 참여하게 되어서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2)				
Q: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교사는 무엇인가?' (질문 잘 기억 안남,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A: 이상적인 교사는 개인적인 신념, 예를 들어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신념을 초월해서 그 사회에서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사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지배구조를 지속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교사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요?				
A: 사회적으로 다수에 의해 동의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입장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런데 사회에서 흔히 동의하는 것과 학생의 개인적 신념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수에 수긍해야 할까요?				
A: 저는 학생의 신념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우선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진주교육대학교	학 과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 형 명	21세기형교직적성자전형	
면접	면접 시간	개별: 8분 / 집단: 35분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면접 절차	개별면접 시 혼자서 면접위원 3명과 문답. 집단면접 시 학생 6명이 토론.		
면접	면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면접 시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전공 및 일반 소양 면접이 이루어짐. ▪ 집단 면접 시 제시문 숙독시간 15분이 주어짐.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개별면접>				
Q: 본인 소개나 할 말 50초 이내로 말해주세요.				
<p>A: 지역아동센터에서 꿈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고 아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초등교사가 하고 싶었습니다. 교육을 일방향성으로 생각했지만 꾸준히 교육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게 되었고 공동교육과정에서 교육심리학 강좌를 수강하는 등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교사는 아이들과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같이 성장하는 직업이라 생각해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p>				
Q: 지원자께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교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만 말해주세요.				
<p>A: 먼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딜레마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언제 칭찬해야 하고 언제 꾸짖어야 하는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자칫 저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후 경험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을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꼭 교육대학교에 진학해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p> <p>두 번째는 눈높이에 맞춰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티가 저와 같은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넘겨짚고 설명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실수를 알게 된 후에는 상대가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고 가르치기 전에 미니 퀴즈를 만들어 멘티의 수준을 헤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과 교사는 경험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대충 말해서는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 교사가 사용하는 용어는 아주 자세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년간 눈높이에 맞추는 연습을 한 경험은 나중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세 번째는 동료교사와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좋은 수업과 연구를 위해서는 동료교사와 협업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Q: 소록도에 봉사활동을 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땠나요?				
<p>A: 집집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찾아 문을 두드렸지만 외부인에게 배타적이셨습니다. 그러나 소록도에 관해 공부하면서 일제강점기에 병원장들이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한다는 미명 아래 한센인들을 착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고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아가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 아이의 가정 환경이나 성장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2

Q: CQ썩썩 지능개발 프로그램을 꾸준히 한 것 같은데, 무엇을 했나요?

A: CQ썩썩은 아이들의 지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창의적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책을 읽고 뒷내용 창작하기, 판화 만들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Q: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만약 진주교육대학교에 온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A: 저는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입학하게 된다면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 클라리넷을 배웠는데, 고등학교 와서 자주 연습하지 못했습니다. 오케스트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서도 실천하고 싶습니다. 혼자 연습할 때는 소리가 나지만 다 같이 연주하면 하나의 노래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체 의식이나 협업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면접> 해당 제시문을 읽고 토론. 3분간 발표하는 형식.

제시문 : 정치적인 이슈를 학교에서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

- (가) 독일은 현재 학교에서 정치적인 내용을 갖고 논쟁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내용
- (나) 우리나라 교육당국은 교사의 편향된 시각이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
- (라) 최근 우리나라의 진보-보수 간의 대립 문제를 언급

1번 문제: 논쟁성의 원칙과 교육당국의 입장 중 어디에 동의하는가?

2번 문제: 민주주의의 발전과 진보-보수 간의 대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1번 문항에 대한 발표

(1) 최근 청년들의 사회참여율이 저조 -> 해결할 수 있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단순 암기의 수용적 사고력만 크고 생각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투표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사회참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논쟁성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2) 가짜뉴스 확산->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언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짜뉴스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른 채 맹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므로 논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롭습니다.

(3) '이해', '소통'의 덕목을 배울 수 있음

진보-보수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헤아려보려고 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과 토의와 같은 논쟁을 해보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알고 이해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2번 문항에 대한 발표

(1) 역지사지 교육(토론, 역할극)

논쟁으로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토론에서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의 토론자로 참여하거나 역할극을 통해 역지사지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2) 올바른 논쟁 방법을 알려주어야 함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폄하하고,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올바르게 논쟁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청주교육대학교	학 과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 형 명	배움나눔인재전형	
면접	면접 시간	25분	면접위원 수	2명
면접	면접 절차	숙고실(10분) + 개별발표(5분) + 개별면접(5분)		
면접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면접 문제가 두 문항이었으며 새로운 유형이어서 당황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1				
Q: 수상 내역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가 무엇인가?				
A: 팝송경연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노래를 정하고 연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일이 큰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Q: 누구랑 같이 나갔나? 친구들을 소개해봐라.				
A: 반 친구들 2명과 셋이서 나갔습니다. 워낙 모두 노래부르는 것을 좋아해 협력하며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Q: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 / 상처가 되는 말은?				
A: 힘이 되는 말은 '선생님이 네 곁에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학교를 다니며 아무리 친구들이 많아도 아이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곁에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따뜻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은 '너는 우리완 달라.'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친구들이 선을 긋고 따돌리는 것은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동료교사에게 힘이 되는 말 / 상처가 되는 말은?				
A: 힘이 되는 말은 '함께하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급의 많은 아이들을 혼자 상대하려면 부담이 되고 지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동료교사로부터 함께 해결해보자 라는 말을 들으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되는 말은 '아이들은 선생님 같은 사람 싫어해.'인 것 같습니다.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동료교사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면 교사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실제로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면 어떡해야하나?				
A: 만약 저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 하며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 아이들이 뭘 좋아한다고 생각하나?				
A: 아이들은 확실히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할 때에도 빙고게임이나 간단한 게임과 함께 하면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Q: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A: 성태숙 작가님이 쓴 '변방의 아이들'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ADHD인 아이들,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이들 등 구석에서, 변두리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제가 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교육의 그림자에 놓인 이들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책입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2

Q: 관심을 기울인다는 건 뭡까요?

A: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런 변방에 놓인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같습니다.

Q: 그럼 실제로 ADHD인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건가?

A: ADHD는 보통 약물치료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사로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 아이가 왜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고 이를 보듬어줄 것입니다.

Q: 그럼 의사랑 교사의 경계가 모호한 것 아니냐? 차이점이 무엇이나?

A: 의사는 약물치료를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교사와는 달리 아이들과 접촉 시간이 짧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진료를 받을 때만 짧게 마주하는 의사와는 다르게 교사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이들과 학교에서 접촉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루만져주는 데에 더 노력을 쏟을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ADHD 아이가 반에 있을 때, 교사가 그 학생을 집중 케어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2가지와 해결방법 2가지는?

A: 첫 번째 문제는 나머지 친구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특정 아이를 집중 케어하기보다 방과 후 학교나 동아리 활동을 활용할 것입니다. 특히 순회교사가 하는 방과후 학교는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없어 ADHD 아이들이 비교적 편하게 학교에 적응하고 원하는 수업을 듣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죄송합니다.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Q: 주위 친구들로부터 어떤 사람이라고 자주 듣나?

A: 저는 즐거운 사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워낙 리액션이 좋고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해서 친구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재밌는 사람이라고 기억해줍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 학 명		춘천교육대학교	학 과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 종합	전 형 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 시간	적성 준비 4분, 대답 4분, 인성면접 10분 내외	면접위원 수	3명
	면접 절차			
면접 특징		▪ 춘천교대는 면접이 60%이므로 기출은 당연히 다 풀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질문 위주로 구체적으로 진술)				
[적성면접]				
Q: 방과후 청소의 순기능 2가지와 역기능 2가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				
A: 청소의 순기능으로는 책임감과 공동체의식~~ / 역기능은 학생 스케줄에 문제가 생긴다고~				
[인성면접]				
Q: 가장 존경하는 교육자 + 노력해야 하는 점 질문함				
A: 고3 담임선생님 이야기하고 지역아동센터 교육봉사 경험을 말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점을 이야기함.				
Q: 2년 동안 특수학교 봉사활동을 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함.				
A: 자신의 생각 위주로 답변함. 이외에 2개 정도 생기부 확인 질문이 주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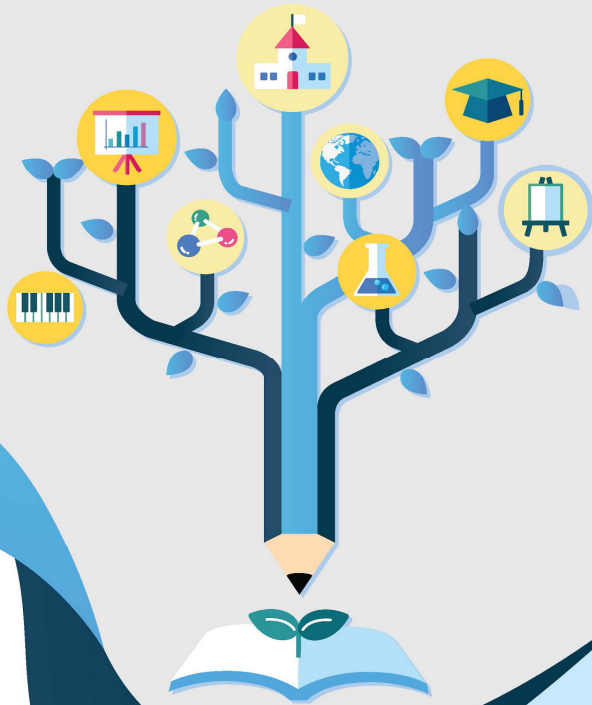
2020
학년도

수시모집
면접
후기
자료집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CHUNGCHONGNAMDO EDUCA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INSTITUTE
진로진학부

제 4 장 **교육대학**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학 과(부)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 형 명	학생부종합(교직적성전형)	분 류	서류기반:토론
형 태	일대다(학생-면접관)	내 용	인성,가치관

면 접 후 기

시험장 분위기 - 진행 방식

- 개별면접과 집단면접 면접관이 다름, 집단 면접 시 제시문 읽는 시간이나 역할 분담 등은 모두 자율
- 개별면접 10분 + 집단면접35분(면접관설명 3분+토의 25분+발표 및 질문 7분)

질문-답변 내용

〈개별〉

[질문] 동아리 활동을 다양하게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이유를 말해주세요 (몇 명이서 활동했는지, 역할 분담은 어떻게 했는지 등 구체적으로 질문 받음).

[질문] 본인이 어려워하는 과목과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 말해주세요.

[질문] 레인보우 프로젝트라는 활동을 했는데 레인보우 프로젝트가 무엇인가요?(생기부 활동)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 받음)

[질문]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PBL수업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직접 PBL수업을 했던 경험을 말하자 그 활동을 하며 칭찬해주고 싶었던 친구와 이유 등 구체적인 질문 받음)

[질문] 마지막으로 '경인교대에 내가 꼭 합격해야 한다'는 이유를 자신의 장점과 함께 말해보세요.



느낀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 구체적인 질문이 다른 학교에 비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 있는 모든 활동들을 한 번씩은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집단 면접은 함께 하는 토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의자에 따라 역할을 나눌 수도 있고, 발표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적이 흐를 땐 지금까지 나왔던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학 과(부)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 형 명	학생부종합(교직적성전형)	분 류	서류기반:토론
형 태	일대다(학생-면접관)	내 용	인성,가치관

면 접 후 기

시험장 분위기 - 진행 방식

- 시청각실 같은 곳에서 약 200명 대기, 대기하는 동안 자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함
- 개별면접 후 집단면접 대기실로 이동해서 30분 정도 대기
- 집단면접이 끝나면 전체 수험생이 모두 함께 퇴실

질문 - 답변 내용

- [질문] 초등교사 말고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적 있나요?
 [답변] 교사에서 초등교사로 구체화한 이후로는 다른 직업을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 [질문] 그러면 교사를 희망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답변] 어렸을 때부터 동생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가르치며 적성에 맞다는 것을 느끼고 교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가르치는 걸 좋아하면 중등도 있는데 왜 초등이에요?
 [답변] 저는 요즘 사회에서 학교폭력의 강도가 심해지는데 이는 아이들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고등에서도 인성교육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초등교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 [질문] 효행상 어떻게 받았어요?
 [답변] 저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제가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했습니다. 이를 어머니가 학부모상담 때 담임선생님께 말씀하셨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효행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 [질문] 한자 잘 하나 봐요? 기억나는 성어나 사자성어 있으면 말해주세요.
 [답변] 저는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갈 때 이미 지각인데 눈까지 올 때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질문] 1학년 때 역사 관련된 상이 많은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사적 인물 한명 말해주세요.

[답변] 저는 세종대왕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없었다면 아직도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여러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교육과 방과후학교 활동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썼는데 해결방안이 뭐였어요?

[답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들은 개인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교육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활동에서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수업시간보다 더 개인에게 맞춘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질문] 그러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답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학생이 줄어들수록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비용이 늘어납니다. 이 문제는 정부나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영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주세요.

[답변]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발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영국에서는 t 발음을 강하게 하여 '워터'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t 발음을 약하게 하여 '워러' 라고 합니다.

[질문] 광장이라는 책에서 주인공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었어요?

[답변] 주인공은 이데올로기적 갈등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에도 북한에도 갈 수 없었던 주인공은 중립국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립국으로 가는 도중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저는 이러한 주인공이 정치적인 갈등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전국에 교대가 많은데 왜 하필 경인교대예요?

[답변] 경인교육대학교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인교육대학교의 대학원이 전국 교대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싶기 때문에 경인교육대학교에 오고 싶습니다.

[질문] 교대에 오면 더 공부하고 싶은 과목이 뭐예요?

[답변] 저는 음악을 심화로 전공하고 싶습니다. 음악을 활용하면 단순히 이론을 강의식 수업으로 하는 것보다 노래를 활용하면 더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악기를 다루고 단체 활동을 하면 협동심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느낀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 저는 주로 생기부에서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특히 수상경력, 독서활동, 교과세특 등 그냥 다 중요한 것 같으니까 꼼꼼히 정리하고 경인교대만의 특징도 미리 공부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공주교육대학교 (공주)

학 과(부)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위주(교과)
전 형 명	학생부교과(고교성적우수자)	분 류	서류기반:토론
형 태	일대다(학생-면접관)	내 용	인성,가치관

면 접 후 기

시험장 분위기 - 진행 방식

- 대기실에서 제시문 3개 제시
- 무작위로 하나를 고르고 3분 동안 답변 구상 시간이 주어진 후 면접

질문-답변 내용

- [질문] 프랜차이즈 기업이 성장하면서 자영업자 생존권이 위협해졌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것인지 시장 경제에 맡길 것인지 견해를 말하라.
- [답변] 저는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장 경제에 자유롭게 맡긴다면 사람들은 더 싼 프랜차이즈 물품만 구매할 것입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입니다. 생존권을 보존하지 못하면 그들의 독창성과 전통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매가 획일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시장 경제에 맡긴다는 사람들은 어떠한 근거를 펼칠까요?
- [답변] 그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규제하면 소비자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자유인데 이를 규제하면 자유가 억압될 것입니다.
- [질문] SNS로 교사가 학생들과 수업시간 외, 방과후 시간에도 소통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장점과 단점 한 가지씩 이야기해 주세요.
- [답변] 먼저 장점으로 학생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하면 학생들의 학습 신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교사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한명이지만 한 반에는 적어도 스무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질문] 학생의 입장에서 단점은 없을까요?
- [답변] 마음이 어린 학생은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바로 답장을 받지 못한다면 혹시 자신을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느낀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세요. 사실 저는 잘 한건지도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웃으면서 편하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주교육대학교 (공주)

학 과(부)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 형 명	학생부종합(기회균형선발)	분 류	서류기반:토론
형 태	일대다(학생-면접관)	내 용	인성,가치관

면 접 후 기

시험장 분위기 - 진행 방식

- 집단면접 들어가기 직전에 제시문을 주고 생각할 시간
- 개인면접 들어가기 직전에 제시문을 주고 3분 볼 수 있음

질문-답변 내용

- [집단면접]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인터넷 실명제 말고 이러한 악플 문제를 해결할 방법
- [답변] 찬성, SNS등의 악플 중에는 자신의 계정이 아닌 가짜 계정을 사용한 댓글이 많다 이는 즉, 사람들은 자신의 실명이 들어간 것으로는 악플을 남기지 못 한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신고 5번이 누적되면 그 댓글이 삭제되는 등 신고기능의 적극적인 강화로 악플 문제 해결가능
- [개별면접]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때에 국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나은지, 이민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설명하십시오
- [답변] 국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 선택하였으며 이민 문호를 개방해도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군 문제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민을 오지 않을 것이라 말함.
- [질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회적으로 집단에 소속하는 것을 배우도록 중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개성, 능력을 중시해야 하는가.
- [답변] 개인의 개성이 중요, 개인이 없으면 집단도 존재할 수 없다.
- [질문] 학교교육에서 2가지가 충돌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가?
- [답변] 2가지 교육 모두 공존 가능하다고 답변함.



느낀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 미리 공부할 때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시사를 찾아보는 것 보단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면접분위기 매우 좋았습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지 않아요.



공주교육대학교 (공주)

학 과(부)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 형 명	학생부종합(지역인재선발)	분 류	서류기반:토론
형 태	일대다(학생-면접관)	내 용	인성,가치관

면 접 후 기

시험장 분위기 - 진행 방식

- 오전: 토론형식(제시문/20분 내외/면접자 4~5명, 면접관 2명)
오후: 개별면접(제시문+교직원/10분 내외/3개의 제시문 중 무작위 선택/면접자 1명, 면접관 2명)
- 제시문 면접은 3분 동안 제시문을 읽고, 면접 실시

질문-답변 내용

[토론 면접]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반대하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보아라.
[답변] 저는 반대 입장을 취했고, 그 근거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가진 한계인 실효성과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집단 면접은 저 포함 4명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비판하거나 보충 설명하였습니다.

[개별면접] 온라인산업의 확대에 따른 장단점?
[답변] 저는 온라인 산업의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고, 장점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로 소비자들이 훨씬 더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간편하게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음을 말했고 둘째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말했어요. 반면 단점 두 가지는 첫째로 재래시장과 같은 형태가 축소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 있고 둘째로 중고나라 사기를 예로 들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말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돈 대신 그 지역만의 화폐를 사용하는 시장이나 그 지역 특산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웹사이트와 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했어요.



느낀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 공주는 다른 곳과 가장 차별화된 점이 생기부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제시문 숙고할 때 필기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인데, 특히 집단면접 할 때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적어도 키워드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시험장 들어가면 좋을 거 같아요.



공주교육대학교 (공주)

학 과(부)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 형 명	학생부종합(지역인재선발)	분 류	서류기반:토론
형 태	일대다(학생-면접관)	내 용	인성,가치관

면 접 후 기

시험장 분위기 - 진행 방식

- 대기실 분위기 조용함. 가져온 책 볼 수 없음. 휴대폰, 전자기기 수거
- 수험번호 순서대로 진행(오전에 집단면접, 오후에 개별면접)
- 제시문 받고 3분간 구상시간 줌. 집단면접 방식은 면접관 대략 설명 후 4명이 그룹 토론 진행, 개별면접 방식도 제시문 받고 3분간 구상 후 면접 진행(1:2 진행)

질문 - 답변 내용

[토론면접 제시문] 인터넷 실명제 찬반에 대한 토론

- 그룹 구성원 4명이 각자 생각에 따라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서서 토론 진행함.
- 찬성 2명과 반대 2명으로 나뉨.(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집단면접 진행)
- 20분 정도 진행됨.

[개별면접 제시문] "타다" 논란과 관련하여 신산업 개발과 기존 산업의 생존권 간의 갈등에 대한 입장

- 추가 질문: 초등교사는 전 과목 담당해야 하는데, 초등교사가 예체능을 가르치는 이유?



느낀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 답변에 대한 근거를 여러 가지 대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1가지를 갖고 답변할 것.
- 면접관들이 잘 웃으며, 좋은 반응을 보여 주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 없음.



대구교육대학교 (대구)

학 과(부)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 형 명	학생부종합(참스승 전형)	분 류	서류기반:토론
형 태	일대다(학생-면접관)	내 용	인성,가치관

면 접 후 기

시험장 분위기 - 진행 방식

- 수험번호에 따른 대기실을 배정받고 들어가면 선배들이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가 번호표 배정.
- 대기실 안에서 30분 동안 면접에 대한 안내. 가 번호대로 조를 구성. 개인 면접 후 조별면접.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가 번호00이죠? 맞으세요.

[답변] 네

[질문] 밥 먹고 왔어요?

[답변] 밥은 먹었지만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오고 싶은 학교이기도 하고 첫 면접이라 긴장되네요.

[질문] 그럼 면접 시작할게요. 상을 많이 받았는데, 흡연 예방글짓기 상을 받았네요. 흡연 예방글짓기는 어떻게 썼어요? 자신의 경험담? 아니면 그냥 예방방법?

[답변] 저는 저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담배로 인한 불편한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저의 경험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저는 주택가에 살아서 아침마다 등교하는데 담배 냄새로 인해서 많은 불편한 상황을 썼습니다.

[질문] (끄덕이면서) 아~ 창의성 교육 들어봤지? 창의성 교육 나중에 어떻게 하고 싶어?

[답변] 저는 만들기 위주의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잇췌 봉사활동에서 처음엔 독서감상문을 위주로 활동을 하였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멘토와 함께 회의한 후, 저희는 한 권을 집중적으로 선택해 이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아이들의 흥미와 수업에 대해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만들기 위주의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음~3학년 때 무단 지각이 있었는데 왜 했나요?

[답변] 제가 대구교육대학교에 너무 오고 싶은 나머지 시험 기간에 공부에 너무 열중해 컨디션 조절에 실패

에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체력관리도 하나의 시험임을 여기고 킥복싱을 배우면서 체력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대구교육대학교에 배구동아리인 어택라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체육동아리에 들어가 이 습관을 대학 생활에서도 유지하고 싶습니다.

[질문] 대구교육대학교에 대해서 잘 아네요?

[답변] 1학년 때부터 너무 오고 싶은 학교라 항상 홈페이지나 선배들의 후기를 많이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질문] 말을 잘하네. 면접 연습을 많이 했나?

[답변] 학교 선생님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질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시면 돼요.

[답변] 감사합니다.



느낀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 이번 연도에는 7교대가 겹쳐서 대구교대는 면접 결시자가 많은 편에 속했어요. 면접을 준비할 때 긴장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도 밖에서 마주치면 아저씨고 아줌마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서 긴장을 완화했던 것 같아요.
- 면접 준비 할 때 '내가 교사라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라는 것을 여러 교직 상황에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그리고 교직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말하면 더 교수님들이 관심 있게 쳐다봐주셨어요. 그래서 경험에 빗대어서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떨지 말고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주교육대학교 (진주)

학 과(부)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 형 명	학생부종합(21세기형 교직 적성자)	분 류	서류기반:토론
형 태	일대다(학생-면접관)	내 용	인성,가치관



시험장 분위기 - 진행 방식

- 개별면접 10분, 적·인성 검사 50분, 집단면접 50분 진행
- 개별면접은 1:3 면접이고, 10분 동안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직 인·적성 관련 문항 질문
- 적·인성 검사 다음 10분 휴식 후에 집단면접 제시문 구상 시간 15분
- (제시문 읽기 + 차트 작성하기 + 발표 구상하기),
- 집단면접 1명씩 3분 발표 후 30분 정도 토의하고 면접관 개별 혹은 공통질문 답변 후 종료

질문-답변 내용

- [질문] 교대에 오기 위해 노력한 점은 무엇인가요?
- [질문]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해 초등교사를 희망하게 된 이유를 말해보세요.
- [질문] 혹시 그 담임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 2, 3년 동안 반장을 했네요? 본인은 어떤 반장이었나요?
- [답변] 솔선수범하고 책임감 있는 반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청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화와 관련 지어 답변
- [질문] 학생은 나중에 초등학생들 청소 지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 [질문] 동기 이론에 관한 탐구를 한 적이 있네요. 내재동기와 외재동기 중 무엇이 더 좋은 형태의 동기라고 생각해요?
- [질문] 그럼 본인이 초등교사를 희망하게 된 것은 내재동기인가요? 외재동기인가요?
- [질문] '나는 1학년 담임입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1학년 지도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질문] 나의 학습법 중 초등학생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학습법이 있나요?
- [질문] 교사의 전문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교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질문] 요즘 시대에 교사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학급 내에서 왕따가 발생했는데, 피해자의 행동이 왕따를 당할 만하다. 교사로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요?

[질문] 초등교사가 된다면 어떤 과목의 수업을 해보고 싶은가요?

[질문] (생활기록부 질문) 수학 시간에 터널의 단면적을 구한 활동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질문] 반에서 학생들이 자는 경우가 많은 이유 무엇이라 생각?

[질문]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은?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느낀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 면접 시간이 긴 편이어서 배고플 수 있으니 간단한 간식거리를 챙겨 가면 좋아요. 개별면접의 경우 진주 교대가 꼬리 질문과 압박 질문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교수님들이 학생의 대처능력이나 멘탈을 보려고 빚빡하게 물어보시는 거니 침착하게 잘 대답하면 됩니다. 집단면접이 가장 중요한데 진주교대의 집단면접은 방식이 매우 낯설고 어려우니, 충분히 연습하고 가야 합니다. 저는 스테디를 활용해 모의 면접을 10 회하고 갔어요.

* 집단면접의 TIP!!

- 1) 돌아가면서 발표할 때 필기를 열심히 하기. 필기 안 하면 토의에서 질문할 거리가 없어서 발언 시간이 제일 짧아지는 일이 발생해요. 또 필기할 때 질문한 거리도 같이 만들어두면 제일 처음 질문할 수도 있고 토의를 주도할 수 있어요.
- 2) 공감과 경청의 자세는 교사에게 중요한 자질이므로 이를 최대한 보여줘야 해요. 다른 사람 말할 때, 필기 하느라 말하는 사람 못 보면 안 돼요. 머리에 모터 달린 것 마냥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는 의사 표현해 주는 것도 좋아요.
- 3) "앞서 0번 토의자님께서 말씀하신 ~한 내용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활용하기. 다른 토의자한테 질문할 때도 유용하고 보충 설명하며 자신의 의견 덧붙일 때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요. 이것 또한 경청한다는 태도를 보이기 좋고, 다른 사람 의견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도 드러낼 수 있어요.

· 개별면접의 경우 생각보다 뜬금없는 것도 물어봅니다. 집단면접은 말 그대로 토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발표할 때 꼭! 경청해주고, 경청한다는 것을 정리해 재진술 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세요.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고, 또 절대로 순서가 면접 결과에 많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까, 순서 욕심 너무 많이 내면 그것도 보기 안 좋다. 항상 타인 생각 존중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진주교육대학교 (진주)

학 과(부)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 형 명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	분 류	서류;제시문기반:토론
형 태	일대다(학생-면접관)	내 용	인성,가치관

면 접 후 기

시험장 분위기 - 진행 방식

- 개별면접 10분, 제시문 기반 토의 면접 50분, 15분 동안 발표지를 작성하여 발표와 토의

질문 - 답변 내용

[질문] (개별면접) 교대에 오기 위해 한 노력한 점 말해주세요?

[답변] 저는 1학년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초등교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다문화 가정 초등학교 학생을 지도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초등학생들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3년 동안 지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선생님을 만나서, 지식을 전달받고 자신도 다른 친구들처럼 똑똑해진 것 같다는 말에 매우 행복했던 반면, 학교에서 받는 차별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 부정적인 가정환경까지 도와줄 수 없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계기로 학생들이 차별 없는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울 수 있는 초등교사의 꿈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질문] 기억에 남는 교사가 있나요?

[답변] 학생들 입장 함께 고민, 입시 준비 도움, 부모와 소통을 통해 그들의 입장을 살피면서 학생과의 의견을 조율해 주신 담임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질문] 학업능력이 훌륭한 학생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요?

[질문] (집단면접) 숙제다운 숙제 활성화 방안

[답변] 숙제의 효과/가정 내 활용/자기주도적 학습

[질문]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 교사와의 소통의 문제점으로만 의견 집중) 학생들이 미디어를 이용해 숙제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질문] 제시한 가정 내 맞춤형 교육에 대해 자세한 의견을 요청받음

[답변]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역시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들의 장점, 관심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고, 교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에 숙제의 내용 측면에서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한 교사와 학부모의 전자적 의사소통 의견, 평균적인 상담 시간의 한계, 학교에서 여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었음- 이러한 한계와 장점을 종합해보면 여러 명의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이의 소식 공유, 다른 아이, 학부모와도 소통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질문] 미디어 교육의 장점에 대해 주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단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계에서는 인공지능, 미디어 활용 수업이 증가할 것이며, 최대 단점은 인간으로서 교사가 학생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살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느낀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 물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필기도구 필요합니다.
- 원거리는 당일보다 1일 먼저 도착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친구들과 주제를 정해 미리 토의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청주교육대학교 (청주)

학 과(부)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 형 명	학생부종합(배움나눔인재 전형)	분 류	서류;제시문기반
형 태	일대다(학생-면접관)	내 용	인성,가치관

면 접 후 기

시험장 분위기 - 진행 방식

- 제시문 숙지 5분, 제시문 답변 5분, 제시문과 관련 질의응답 5분, 생활기록부 관련 5분.

질문 - 답변 내용

〈제시문〉 인공지능으로 인해 교육이 위협받는다라는 내용의 제시문

[질문] 2050년 본인의 자식이 있다면 학교에 보낼 거예요?

[답변] 당연히 보내겠습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예비 사회인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작은 사회가 없다면 실제 사회로 나가서 많은 시행착오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학교에 보낼 것입니다.

[질문] 인공지능과 비교하여 교사의 강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답변] 인공지능과 비교한 교사의 강점은 아무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 접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기때 사람이 살아가는 만큼,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개인의 인격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학생의 성장에서 인성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질문] 책을 많이 읽었는데, 다 숙지했나요? 깊이 있게 읽었나요?

[답변] 최대한 깊게 읽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학생으로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독서 모임 친구들과 함께 책에 관해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어떤 책이 가장 어려웠나?

[답변]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고, 페이지가 많아 친해지기 어려웠던 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 독서 모임 친구들과끼리 모여서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서로 이해시켜주고, 각 장에서 한 주제씩 발제해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배우는 즐거움을 알 수 있었었습니다.

[질문]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답변] 이영근 선생님께서 쓰신 '초등 학급 운영 어떻게 할까?'라는 책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올해 읽었지만 3, 4번 읽어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는 학생인 만큼 실제 학급과 관련한 내용이라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영근 선생님의 '참사랑땀'반은 실제로 선생님과 헤어진 후에도 몇 년씩이나 연락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선생님처럼 학생에게 많은 관심을 주고, 학생을 위하고, 학생을 사랑하며, 또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관리 노하우가 있나요?

[답변] 학습플래너를 작성했습니다. 하루의 학습량, 해야 하는 활동, 학교 활동, 봉사활동 등 제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느낀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 압박이 조금 심합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세요.
- 최대한 자신 있게 답변하도록 하고, 제시문 내용은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또 제시문 관련한 질의응답도 굉장히 깊고 어렵게 들어가니까 주의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춘천교육대학교 (춘천)

학 과(부)	초등교육과	전형유형	학생부위주(종합)
전 형 명	학생부종합(교직적 · 인성인재)	분 류	서류기반
형 태	일대다(학생-면접관)	내 용	인성,가치관

면 접 후 기

시험장 분위기 - 진행 방식

- 교직 적성(4분 동안 교육 관련 제시문 읽고 답변 준비 2문항, 각 문항 2분 내외로 4분~5분 답변) 교 직 인성(5분 동안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관련 확인 면접)

질문-답변 내용

- [질문] (교직 적성 면접) 방과 후 청소의 역기능과 순기능 2가지 제시하세요.
 [답변] 순기능은 책임감 교육, 협동심과 소속감 기르기, 역기능은 방과 후 학습권 침해, 열심히 하지 않는 급우를 보며 역할 수행에 회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질문] (교직 적성 면접) 교사가 되면 청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 직접 청소하도록 지도하겠다는 답변을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경험을 활용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소속감을 길러주면 책임감이 생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용역업체에 사용할 예산을 교육에 활용하겠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 [질문] (교직인 성 면접)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교육자, 그리고 비교해 자신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답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선생님에 비해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찾고, 칭찬해주는 능력이 부족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답변하였습니다.
- [질문] 2. 3년 동안 반장을 했는데, 본인은 어떤 리더였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구성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리더였음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답변하였습니다.
-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답변] 제 성격의 장점과 교사가 되었을 때 이 장점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답변하였습니다.

느낀점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 제시문 면접에서 숙고시간 동안 메모가 가능하니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서 들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니 간단한 간식을 챙겨 가면 좋을 것 같아요.
- 면접 비중이 60%로 다른 교대에 비해 높으니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은 조금 나누는 것이고
지혜를 나누는 것은 많이 나누는 것이며
사랑을 나누는 것은 전부를 나누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나누어 후배들의 앞길을 밝혀주신
모든 졸업생과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2021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후배들과
경북진학지원센터 일동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인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교직적성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면접관 2명			
유의사항	◆ 대기실(강당)에 입장한 후 자료 열람 금지 ◆ 지원자 간/ 지원자-경인교대 재학생 간 대화금지(대화 시 퇴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다양한 부문에서 골고루 수상을 많이 했는데, 그 중 영어수상이 많네요, 영어를 잘하나 봐요 ?

A : 네, 저는 영어에 무척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2학년 때 싱가포르에 방문하여 타국친구들과 토의를 했던 경험과 3학년 때 미국, 몽골 친구들과 교내에서 토의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은 경험은 이런 저의 흥미를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이하 생략)

Q : (자소서를 매우 재미있게 읽었다고 칭찬해주심. 특히 2번 심리학 관련내용) 자소서 2번을 재미있게 읽었어요. 상관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상관분석을 하면서 어려웠을텐데 어떻게 해결했나요?

A : 2학년 때 sns중독, 자아존중감 그리고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상관분석을 진행할 때는 상관분석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다룬 경험이 있으신 사서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3학년 때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상관분석을 했을 때에는 통계청 통계교육원이 제공하는 spss 사용법 강의를 들은 후 스스로 프로그램을 구동하여서 상관분석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Q : (자소서 3번관련) 언어문화 선서식이나 캠페인 등을 많이 진행했는데, 이런 활동은 아무래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는데, 더 장기적으로는?

A : 캠페인과 같은 활동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점에 매우 동의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복도나 교실에 '칭찬합니다' 게시판을 만들어 지속하여 서로를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학급 칭찬/ 바른말 일기 등을 운영 ??

Q : 자소서 1번에 입찰지대곡선과 같은 지리와 관련한 활동을 했네요. 마지막에 소규모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라는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요.

A : 네 저는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거점학교를 운영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규모 학교를 예술/체육과 같은 문화예술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우수 교원분들을 우선 배치하고, 다양한 교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거점학교를 운영하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자부심을 가지고 다양한 체험 또한 누릴 수 있어 학교를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많은 직업 중에 초등학교교사가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A : 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라는 꿈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대한 존경심으로 시작된 꿈이, 중학교 시절 도서관과 다양한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는 상록수라는 교육봉사동아리 활동으로 직접 아이들을 생각하며 수업도 개발하고,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며 행복을 느끼게 되면서 초등학교 교사라는 저의 꿈은 더욱 확고해지고, 확실해졌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인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교직적성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개별면접 15분, 집단면접 2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강당에서 전체 대기 - 팀별 대기 - 개별면접(면접관 2인) - 전체 대기 - 팀별 대기 - 집단면접(면접관 2인)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금지 ◆ 대기 시간에 자료 열람 불가 ◆ 방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교수님과 거리가 가까움 ◆ 면접관께서 2분 정도 유의사항을 읽어주심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생기부 보니까 이것저것 교육에 관해서 조사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육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 했던 다양한 경험을 들어서 얘기해보세요.

A :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은 주입식, 강의식 교육입니다.

Q : 우리나라 교육의 단점 말고 장점이요

A :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인 강의식, 주입식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많지만, 학생들의 학습효율성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고 이런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인재를 길러내어 발전하는데 기여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가 초등학교 때를 살펴보면...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Q : 여기 교육학 수업을 들었다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A : 공동교육과정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관련된 교육 쟁점 이슈를 친구들과 함께 토의했습니다.

Q : 여기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연구했다(사문 세특)고 돼있는데, 방과후학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A : 공교육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쪽으로 대답함

Q : 근데 여기서는 방과후학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A :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수업을 살펴보면 방과후 수업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불만이 많았고, 그에 따라 방과후 수업의 참여도가 낮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연수나 동료 교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면 방과후 학교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Q : 밴드웨건 효과에 대해서 탐구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보고 초등학교들 사이에서 그 사례를 설명해보세요

A : 밴드웨건 효과는 모방심리에 따른 유행현상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입고 있는 룻패딩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유행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심리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

봉사를 갔을 때 거기 아이들이 휴대폰 게임을 정말 좋아했는데, 모두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친구가 어떤 것을 하면 그걸 따라하고, 집단이 특정 행동을 할 때 거기 안 따르면 불안해하면서 따르는 심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 선행학습을 금지하면 학생의 학습적 자율권이 침해되지 않을까요?

A :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준의 선행학습은 공교육 붕괴, 사교육 심화, 빈부 격차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양해야 합니다.

Q : 융합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알아본 것 같은데 융합이 뭐예요? 이걸 초등교육에 적용시킨다면?

A : 융합과 통섭에 대해 알아보려고 유튜브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밥을 먹을 때 한가지 반찬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반찬을 조합하여 먹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영역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대해 열린 눈을 가진 것이 융합입니다. 초등 교육에서는 수학 과학 예술 공학 미술을 합친 steam 교육이나 협동학습 등 새로운 교수안을 통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 어..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어필해보세요

A : 경인교육대학교가 제 1지망 학교인데 3월에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단면접 주제가 노인연령 기준선 상향, 기대효과, 문제점, 해결방안 3가지씩이었음.

Q : 추가질문2. 이번엔 나머지 세명 중에서 대답해보세요.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달갑진 않을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 기업과 정부간의 진실된 대화를 통한 협의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답변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학생부종합전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교대에 들어오려면 자사고, 특목고가 아닌 이상 전교과 성적을 1.7 이내로 만드는 것이 안전해요. 1,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은 활동 내용과 느낀 점을 기록해두는 것이 편해요. 2학년 겨울방학 때 생기부를 되돌아보면서 자소서를 한번 작성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3학년 활동으로 채우세요. 개별면접은 모의면접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집단면접은 다른 학교 친구들과 같이 몇 번 연습해보면 늘어요~!! 생기부 활동은 본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느낀 점 위주로 채워주세요. 꼭 교육관련 활동일 필요는 없으니 다양하게 채워주세요. 참고로 경인교대는 타 학교에 비해 비교적 생기부와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어본 티가 났으니 모르는 내용이 없도록 꼭 숙지해주세요. 저는 실제로 훨씬 황설수설했지만 교수님들이 그런 점 다 감안해주신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중요한건 성적이에요. 면접 별로 못 본 친구들도 성적대가 좋으니 최초합하더라고요.. ㅎㅎ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교직적성인재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시사문제+교직적성)
	면접절차	◆ 대기 → 집단면접 (교수님 두 분) → 점심식사 → 대기 → 개별면접 (교수님 두 분)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단정한 사복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최근 인구감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들의 유입을 장려하는 것이 좋을지,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은지 말해보시오.

A : 저는 외국인들의 유입을 장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장려정책도 좋지만 외국인들의 유입을 장려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세계화 시대로 세계는 다양한 장점, 생각 등을 가진 여러 명의 인재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Q : 외국인들의 유입을 장려한다면 외국인들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A :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면 이러한 역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아래에서 위로의 개인 위주의 교육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의 집단식 교육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A : 저는 개인 위주의 교육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각각 다른 장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일괄적인 수업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교육이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기에 더 좋아 개인 위주의 교육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렇다면 개인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국가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이 모이면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침착한 답변과 곧은 자세, 그리고 교수님과의 눈을 마주치며 살짝 웃었던 것이 교수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의 답변이 교수님들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29	
전형명	교과성적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질문 생각시간 3분 + 면접시간 10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제시문 봉투 3개 중 1개를 뽑은 후 면접실 들어가서 답변		
	유의사항	◆ 면접실에서 교수님이 정해진 교직 관련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형식이라 교직 문항은 생각 불가능 ◆ 대기 시간이 길면 2~3시간이 될 수도 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어떤 제시문을 뽑았습니까?

A : 프랜차이즈에 대한 제시문을 뽑았습니다.

Q : 의견을 말해볼래요?

A : 제시문에서는 프랜차이즈점이 늘어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점 운영 또한 누군가의 자유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이런 사태의 원인은 시장원리만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원리에만 맡기는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도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프랜차이즈점을 억압하기 보다는 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점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교직에 관해 질문할게요. 정보화 시대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SNS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SNS 소통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보세요.

A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SNS 소통의 장점은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의 증가를 통해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학생이 학교에서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단점은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와 가정 경계가 모호해져 본래의 업무에 집중을 잘할 수 없다는 것과 교사의 사생활 침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교과 면접의 특성상 다른 교대보다는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자신이 채워야 하다 보니 기본적인 이슈에 대해 장단점, 찬반 의견을 숙지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광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6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교직적성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면접하기 전 복도에서 기다리다 면접 시행		
유의사항	◆ 교복 입으면 안됨 ◆ 자신의 신분 밝히지 않도록 유의하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물리학자에서 초등교사로 바뀐 이유는?

A : 2학년 때 멘토멘티 활동, 교육봉사 활동을 하면서 교육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등교사, 중등교사를 할지 고민하던 중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6학년 때 저는 만화책을 정말 좋아하여 수업 시간에 매일 읽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저에게 다그치지 않으시고 수업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 읽는 것이 어떻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미성숙하였기에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권유하셨습니다. 그 후 제가 스스로 만화책을 덮고 공부에 임하였을 때 선생님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잘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은 계속해서 스스로 변화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인성이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에 잘못했다며 다그치는데 아니라 끝까지 믿고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하고 싶기에 초등교사를 희망하였습니다.

Q : 미술 성적이 낮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A : 네, 저는 원래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열심히 하였지만, 선생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낮은 성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대에 입학한다면 미술을 꾸준히 배워 제가 좀 더 잘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미술 활동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Q :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방안은?

A : 획일화된 교육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는 자신들이 배우는 국어나 사회 등 많은 과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 학교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자신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들을 배워 학교에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 네, 저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단편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바로 교육하는 것이 아닌 꾸준한 관찰을 통하여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관찰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자신이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한 번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잘해야 한다.
- ◆ 교육이슈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광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교직적성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개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사전에 수험번호를 기준으로 대기실이 정해짐. ◆ 대기실 책상에는 본인의 이름과 새롭게 주어진 가번호가 있음. ◆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1명씩 부를 때 나가서 개별면접을 실시함.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개인의 학교, 지역, 수험번호 등을 말하면 불이익이 있음. 반드시 가번호를 얘기할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오실 때 어떤 각오로 오셨어요?

A : 음.. 이 면접이 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왔습니다.

Q :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A : 네. 면접 때문에 걱정을 하긴 했는데 먹고 왔습니다.

Q : 샘터 교육봉사 활동을 하셨죠?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 있습니까?

A : 네. 제가 1년 반 정도를 가르친 5학년 지후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후는 4학년까지 본인이 하고 싶은 운동만 하느라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이해도 잘하고 학업에 대한 열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접하면 곧바로 포기하는 습관이 있어서 제가 그럴 때마다 풀이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래도 멘토인데 답지와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후와 함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함께 찾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저는 그 목표를 향하는 데 있어 단서만 제공해 주며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 고등학교 3년 동안 초등교사 희망하셨고, "교사, 삶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책을 통해 배운 것도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 책의 핵심이 뭔가요?

A :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억이 안 납니다ㅠㅠ.. 대충, 교사 자신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투영되며 모범을 보일 수 있다 정도 였던거 같아요.)

Q : 그럼 이 책에서 더 배운 건 없나요?

A : 아, 이 책에서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며 교실을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서양 의학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보는 병원처럼 환자가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 대한 처방만 빠르게 내리고, 동양 의학은 환자가 아픈 곳이 있으면 몸 전체에 대해 살펴보고 신체를 유기적인 측면으로 판단하여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동양 의학처럼 수업도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 사회 등 전체적인 측면을 파악하여 해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Q : 혹시 교육 봉사하신 이유가 물론 봉사 시간도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가정에서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기만 했지, 특별히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올 때 보셨겠지만, 저의 큰 키 때문에 아이들이 저를 마치 본인들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장벽이 생긴 듯했고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는 웹툰, 만화 등에 관심 가지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Q : 교사가 가져야 할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A : 교사가 가져야 할 덕목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은 봉사 정신과 열정을 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교육 행위가 보답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고, 인류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더 이슈라는 동아리는 뭐하는 동아리죠?

A : 최근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를 논제로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Q : 그럼 이 동아리에서 학교, 학생들과 관련된 주제도 하셨을 거 같은데 무엇인가요?

A : 소년법 폐지가 최근 들어서 논란이 되어, 소년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국민의 도마 위에 올랐는지, 등을 조사하여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Q :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하시겠어요?

A :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사가 가장 가져야 할 자질과 덕목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교육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있고, 인류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품어주고, 교실에서 함께 성장해나가며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광주교육대학교의 질문이 어렵다면 사전에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체감상 매우 쉬웠다는 것이다.
- ◆ 예상했던 질문에서 거의 다 출제되었기에 대답도 정리한 대로 잘했다. 또한, 전국 단위로 뽑는 이 전형의 경우 교대는 면접일이 굉장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결시자가 많아 합격 확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 ◆ 긴장을 풀고 최선을 다한다면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남)29	
전형명	지역인재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개별면접: 10분, 집단면접: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개별면접 후 집단면접		
유의사항	◆ 3인 1조 ◆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편한 분위기 조성해 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봉사활동에 요양원 봉사활동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컸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이 큼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어르신들께 제가 받은 것들을 다시 베풀고 싶었고, 의미 없이 청소를 하고 배식을 돕는 것보다는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요양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 그럼 봉사활동 중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A : 아무래도 세대 간의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에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찾아도 보고, 할머니께 물어보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Q : VOS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는 무슨 동아리이고,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이야기해주세요.

A : VOS는 영어신문동아리로, 학교의 사건이나 국내 더 나아가서 해외의 사건들에 대해 영어로 기사를 쓰는 동아리입니다. 저는 이 동아리에서 취재부를 맡고 있었고, 선배님이나 후배님이 쓰려고 하는 기사 주제에 관한 내용을 조사해주고, 학교에서 인터뷰를 할 일이 있을 때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Q : 교대에 오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독서 활동을 많이 하였는데, ‘슈타이너 학교의 참교육 이야기’라는 책에서 슈타이너 학교가 미술 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A : 왜 미술 교육을 중요시하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른 학교들에 비해 체험 활동을 더 중요시한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Q : 방금 질문이 어려웠다고 하니깐, 좀 더 쉬운 질문을 내 드리겠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는 기억나시나요?

A : 네.

Q : 이 책에서 닐은 왜 자살을 했을까요?

A : 생각할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잠시 후) 이 책에서 닐은 아버지와 진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

었고, 친구들과도 다름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학생들은 부모,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둘 다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과 외로움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Q : 이 책의 배경은 미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공립 고등학교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 있습니까?

A : 우리나라에서도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있고, 일반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고 학생들도 명문 고등학교의 활동을 따라 하는 것도 있고, 활동에서 고등학교 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학생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렇다면 일반고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A : 진로에 대한 부모님과과의 갈등은 일반고만큼 심하지는 않겠지만 일반고나 실업계 고등학교나 다 같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친구들 간의 다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어떤 초등교사가 되고 싶나요?

A : 저는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초등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토레 멘토링 활동이나 요양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상호 간의 배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교육대학교에 진학을 하여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하여 다양한 유형의 초등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초등학생들의 행동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배울 수 있는, 함께 성장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Q : 12년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학교 선생님이 있나요?

A :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 선생님은 학기 초에 저희에게 수업 발표를 과제로 내어주시고, “너희들의 수업 발표를 보면 너희들이 원하는 수업 방식이 있다. 나는 그 수업 방식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운동을 하고, 사석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Q : 꿈이 펀드매니저에서 교사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A : 꿈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학년 겨울방학 때 선생님의 권유로 아파트 단지에서 맞벌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흥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더 배우보고 싶었기 때문에 교사로 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Q :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나요?

A : 마지막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팔찌 만들기 활동을 하였는데 아이들에게 팔찌 만드는 법을 설명해주는 부분에서는 많이 힘들었지만, 마지막이라고 자신이 만든 팔찌를 제게 선물로 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Q: <집단면접>

학예회에서 합창대회를 하는 데 엄청난 상품이 걸려 있다. 그래서 3-6반은 우승을 목표로 다른 반보다 한 달 일찍 준비를 하는데, 한 아이가 기본적인 박자도 못 맞추고, 음치이다. 일주일 남았는데, 우승을 포기하더라도 그 아이를 챙겨줄 것이냐 아니면 그 아이를 제외하고 대회에 참여할 것이냐를 두고 회의를 했다. 만약 본인이 이 반의 담임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재학 시절의 사례를 들어서)

A : 저는 우승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모든 아이가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예회나 합창대회의 목적은 잘하는 것보다 협동을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성가 합창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음과 박자를 잘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비슷한 논제로 학급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우승보다는 모두의 참여를 우선시하자는 것이었고, 음과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하는 친구들은 뒤에서 율동을 하고, 비교적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는 마이크와 가까운 위치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저희 반 아이들에게 말해주면서 비록 상을 못 받더라도 모두 다 함께 참여를 하여 우리 나뭇의 하모니, 화음을 만들어 보자고 말하겠습니다.

더 추가한 말 : 일단 두 분 다 저와 의견이 비슷하여 딱히 비판할 점은 없고, 첫 번째 분과 세 번째 분이 내적 동기를 통해 아이들을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저는 아이들을 무조건 참여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초등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신감을 가지자.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개별면접 10분 - 집단면접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개별면접은 3 대 1, 집단면접은 3 대 3으로 각각 10분씩 진행			
유의사항	◆ 대기시간 중 자유롭게 자료 보는 것 가능(도우미분이 지금 자료 눈에 안 들어오니 그냥 집단면접 같이 볼 옆 사람이랑 친해져 놓으라 해서 대화하면서 시간 보냄.)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p>(직접 노크하고 문 열고 들어감, 대기할 때부터 도우미 선배님이 긴장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해주심.)</p> <p>Q : 요즘 교대 지망 학생들이 참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구성주의, 인지주의, 행동주의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실제 상황에서 이용했다고 하는데 한번 얘기해줄래요?</p> <p>A : 네. 우선 대학교 교육학이 아닌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온 교육적 용어이기 때문에 심오하고 깊게 배우진 못했습니다. 행동주의는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만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인지주의와 구성주의는 자극 없이 피학습자가 능동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하는 것을 칭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p> <p>Q :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용한 거예요?</p> <p>A : 아! 그건 모의 수업을 하면서 이용해보았습니다. 한 수업에서는 행동주의에 맞게 일정한 보상을 두고 수업을 했고 다른 수업에서는 보상 없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토론형식으로 활동해보도록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보상이 없을 때 더 능률이 좋아서 나중에 교사가 된다면 꼭 참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p> <p>Q : 음, 보상도 두고 능동적인 토론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p> <p>A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상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보상을 둔 집단에서는 이어지는 활동에서 보상 없이 해보았더니 적극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중점을 둔 행동주의적 학습은 다음에 이어질 활동에 악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교수님이 웃으면서 "사탕이 없으면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구나"라고 농담도 해주셔서 더 편안히 면접에 임했습니다.)</p> <p>Q : 성적을 보니 1학년 때는 좀 낮은데 계속해서 성장하네요? 이렇게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뭐 학습법이라든지...? 설명 좀 해주세요.</p> <p>A : 제가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내면적 측면과 학습법과 같은 외면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선 내면적 측면으로는 저는 1학년 때 불명확한 진로 희망으로 인해 여러 직업에 대해 '과연 내 적성에 맞는 것인가?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인가?' 하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교사를 꿈꾸게 되었고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성적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강한 열망</p>					

으로 생긴 목표 의식으로 인해 성적이 올랐던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중학교 때까지는 체계 없이 공부를 하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공부법에 대해 탐구해보게 되었고, 그 뒤로 계획도 세워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공부도 해봤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럼 아이들에게 교사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요?

A : 저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배려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뉴스를 보면 입시 비리 등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한데 이러한 사회 상황에서도 보석같이 배려심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배려를 가르친다고 아이들 성적이 올라가나? 음 아이들에게 배려를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

A : 아 학업적 측면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Q : 어어 그래요.

A : 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드시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추어 융합적 사고를 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융합적 사고라... 좋습니다. 학생은 아까도 말씀하셨드시피 진로가 바뀌었죠? 이렇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고 본인이 초등교사로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A : 네, 저는 1학년 때 단순히 취미와 흥미를 바탕으로 스포츠 관련직을 꿈꾸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이게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던 중 친척 집에 가서 사촌들과 놀아주며 행복함을 느끼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교사에 관심이 생겼고 결정적으로 교육봉사를 하고 나오는 저를 늘 어머니가 데리러 오셨는데 어머니가 제게 ‘너는 이 순간만 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이야’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의 초등교사에 대한 진로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Q :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죠?

A : 저는 타인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모습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스포츠 관련직이면 구단주인가?

A : 아니요. 스포츠 에이전트를 꿈꿨습니다. (전체 웃음)

Q : (웃으시며) 아 나도 구단주가 꿈이어서... 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그러면 초등교사를 하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겠죠? 분명 힘든 일도 있을 텐데 교육봉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A : 네, 사실 저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봉사활동에서 인사도 잘 하지 못하고 말도 잘 못 하는 소심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당혹스러웠는데 처음부터 아이에게 큰 것을 바라지 말자는 생각으로 눈을 마주치면 귀를 내어주며 작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어려워하던 아이가 마음을 열고 점점 더 다가왔고 수업이 다 끝날 때쯤엔 큰소리로 저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점이 조금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Q : 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거의 다 됐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 나를 안 뽑으면 손해일텐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강점(?)이 드러나게 어필해 보세요. (이런 식이었는데 정확한 질문은 기억이 안 나네요)

A : 저는 개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 저 친구는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하던 중 '교사를 꿈꾸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 소통을 시도했고 그 이후로도 저는 의사소통의 참가치를 깨달아 아직까지도 그 능력을 함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단면접

간략한 주제 : 반의 급훈은 우정을 중시하고 담임선생님은 반장으로서 책임감을 중요시한다. 반장 A는 절친한 친구 B가 있다. 어느 날 반 전체에 담임선생님께서 과제를 내주셨는데 B 혼자서 집에 놔두고 들고 오지 않았다. A는 지난주에도 담임선생님께 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라는 꾸지람을 들었다.

Q :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반장 A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등학교 직접 또는 간접경험을 통해 설명하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해보시오.

A : (3명 중 3번째로 답변함) 저도 반장을 하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반의 급훈도 '첫 마음으로 함께 성공하자'로 우정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담임선생님께서도 반장으로서 책임감과 공동체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들고 와야 할 것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 공동체에 꾸짖으시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로 인해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차라리 B가 과제를 하지 않아 반 전체에게 피해를 주느니 제가 혼자서 혼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담임선생님께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하고 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저만 혼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제게 고마워하기도 했고 저는 반장으로서 책임감은 희생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대구교대의 면접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대기실에서부터 편안합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했던 질문들은 제가 예상해보았던 질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 빠진 답변이 없는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긴장하기도 했고 질문이 길어서 앞 질문 답변에 집중하다 보니 두 번째 질문에 두 번이나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개별면접)+10분(집단면접)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하면 대기실에 들어가서 핸드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제출함. (면접 준비한 내용 종이를 들고 가기!) ◆ 조를 배당받고 조끼리 앉고 같이 기다림. (한 조당 3명) 1조부터 차례대로 나가는데 한 조당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림. 차례가 되면 같은 조 친구들과 나가서 복도 의자에 앉아있음. ◆ 대기 번호 순서대로 개별면접을 한 후, 집단면접에 들어감. 개별면접은 생기부를 기반으로 질문함. ◆ 집단면접은 제시문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3분 가진 후 먼저 말하고 싶은 순서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함. 다 말한 후 추가로 할 말을 물어보면 말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금지, ◆ 이름, 고교명, 지역 등 언급 삼가. ◆ 면접 준비한 거 있으면 종이를 들고 갈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Q : 1학년 때는 성적이 별로인데 2, 3학년 성적은 우수하네요. 어떻게 공부했고 또 이것을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A : 시험 위주의 암기 공부보다 학문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깊고 넓게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멘토-멘티 활동, 아침을 여는 수학 등 다른 친구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수학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지식 공유 토론식 수업을 많이 제공하고 싶습니다.

Q : 초등교사가 왜 되고 싶은지, 또 자신의 장점 중 교사로써 도움이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 교육봉사에서 만난 아이 중 애정 결핍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던 중 아이의 가정 이 결손가정이었기에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인이 전부 가정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급증하고 양육복지에 따른 사회적 배려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이 지식전달에서 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까지 확대됨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후 공부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초등교사라는 꿈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도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 교사가 되어 마주할 어떤 문제 상황도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인상 깊은 독서가 무엇인가요?

A : 저는 ‘체인지메이커 교육’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 극복해내는 힘을 길러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저에게 아이들이 스스로 주변에서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해결해나가는 체인지메이커 교육은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례 중 전학 온 친구를 위해 우리 마을 지도 만들기 수업을 보았습니다. 전학 온 친구가 마을 구조를 잘 모른다는 것을 문제 상황, 즉 동기유발로 설정하고 자연스레 지리 수업과 이어서 아이들이 지도 기호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자연스레 배우도록 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아이들 스스로 문제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영향력을 느끼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교육봉사를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중학교에서도 하면서 초등, 중등 다 가르쳤는데 달랐던 점이 있나요?

A :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중1 학생을 가르쳤고 중학교에서는 중3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만난 중1 학생은 애정 결핍 증상이 있었고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중3 학생은 높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불안감이 높았으므로 상담을 통해 불안감을 낮추주려고 노력했습니다.

Q : 본인의 어떤 점이 어떤 교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나요?

A : 저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고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을 주고 잠재력을 이끌어 내주려 노력합니다. ‘섬마섬마’ 동아리에서 핀란드 융합 교육을 직접 계획하고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활기차고 웃음 가득한 교실을 만드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학 수업을 통해 핀란드 융합 교육을 알게 되었고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해보고자 직접 제안했습니다. 동아리 부원들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렌지를 주제로 여러 과목에서 활동을 진행하며 융합 교육이 교실을 활기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과가 있음을 몸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맡은 국어 ‘오렌지를 주제로 시 짓기’ 활동에선 한 아이가 쓴 “오렌지가 10조각인 이유”라는 좋아하는 오렌지지만 나눠 먹겠다는 내용을 보곤 평소 주말 봉사에선 알 수 없었던 아이의 가치관과 배려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아이가 자신만의 가치를 알도록 잠재력을 이끌어 내주는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 할 말 해보세요.

A : 사람들에게 저의 첫인상을 물어보면 ‘보호해 줘야 할 것 같다’, ‘암전하고 착하기만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비바람을 쫓고 가시밭길을 헤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저의 열정에 대구교대라는 바탕을 제공해주십시오! 훌륭한 교사로 성장해 대구정복을 밝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Q : <집단면접 질문> 나는 반장이다. 숙제가 있어서 어제 나의 집에서 다 같이 숙제를 했다. 다음 날 친구 B가 실수로 숙제를 가져오지 않았다. B는 반장인 나에게 까먹은 척하고 내일을 제출일로 해주면 안 되냐고 물었다. 나는 반장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직접 또는 간접경험을 통해 말해보아라.

A : 먼저 급박한 B를 다독여주고 B가 진정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 후 ‘나 전달법’을 통해 친구가 기분이 상하

지 않도록 하며 친구가 요구한 대로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줄 것입니다. B에게 내가 선생님께 말해본다고 말한 후, 선생님께 “우리 다 같이 숙제를 해서 B 친구가 숙제한 걸 다 알아요. 근데 B가 실수로 안 들고 왔나 봐요. 이번만 봐주시면 알 될까요?”라고 말하며 친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매점 선도부로서 저는 매점에서 산 음식물을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한 친구들은 “나는 좀 봐주면 안 되냐”며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 많이 곤란했습니다. 저는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 되는 이유를 ‘나 전달법’을 이용해 말했고, 친구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제 상황을 이해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전달법’을 이용해서 친구에게 설명하면 친구와의 관계와 선생님과의 신뢰 모두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추가로 할 말 있으면 말해보세요.

A : 옆 지원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친구에게 설명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집단면접에서 앞서 얘기한 지원자의 의견과 생각이 같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당당히 의견을 말할 것. 집단면접에서 다른 지원자가 얘기하는 거 필기하고 고개 끄덕이며 열심히 들을 것. 마지막으로 집단면접에서의 지문은 전문적 역량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원자의 공감, 배려 등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지문을 읽으며 공감, 배려, 위로할 것 등을 먼저 찾아낼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특수교육대상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대기실 - 면접실, 면접관 3명			
유의사항	◆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할 것. ◆ 교복 착용이 불가능함. ◆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출신, 학교 등에 관한 내용 언급은 하지 말 것. ◆ 가지고 온 자료를 대기실에서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A : 네.</p> <p>Q : 1, 2학년 진로 희망을 보면 제약연구원이라고 되어있는데 3학년 때 갑자기 초등교사로 진로가 바뀌었는데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A : 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이러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제약연구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치유되더라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정신적인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초등교사가 체육과 같이 활동적인 활동을 통해 육체적인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상담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초등교사로 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p> <p>Q :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A :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교사라는 직업이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2학년 겨울방학 때 아동복지센터에서 교육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제가 수업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남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일가견이 있다고 느꼈고 또한 아이들이 제가 구상해 온 활동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초등교사라는 직업과 적성이 맞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꼭 초등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의지를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p> <p>Q : 봉사활동 내역을 보니 3학년 활동을 하면서 바쁠 텐데도 꾸준히 봉사활동에 나갔는데 힘들지는 않았어요? A :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가는 것은 아이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빠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p> <p>Q : 몇 학년 가르쳤어요? A :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가르쳤습니다.</p>					

Q : 생기부에 보면 1학년에 비해 2, 3학년 성적이 낮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A : 네. 저는 항상 타인에 의해서만 공부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2학년 때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방향성을 잃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성적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초등교사라는 꿈을 품고 나서 공부를 하여 초등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방향성을 잡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1학년 때 성적보단 낮아도 2학년 때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또한, 저는 3학년 때가 1학년 때보다 시험성적이 비교적 낮아도 독서 활동이나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교사가 가져야 하는 소양을 더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자연계열 학생들은 인문적인 소양이나 예술 활동이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비교적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혹시 미술, 체육, 음악 중에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이 있나요?

A : 네. 저는 모든 과목에 관심이 많지만, 그 중에도 음악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피아노를 어느 정도 칠 줄 압니다. 그래서 전 공부를 하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학교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다 보면 학업 능률이 오를뿐더러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미래에 교사가 되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는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Q : 어떤 피아노곡을 칠 수 있나요?

A : 캐논 변주곡이나 플라워댄스, 이루마의 maybe와 같은 곡을 칠 수 있습니다.

Q : 면접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A :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이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적 빨리 끝나고 같은 방에 있는 학생들과 제시문 면접을 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서 익혀두는 것이 제시문 면접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비교적 압박 면접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선생님들과의 모의 면접을 하다 보니 조금도 떨리지 않았고 생기부를 꼼꼼히 보면서 예상 문제를 만들고 답변을 달다 보면 쉽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사향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오전 10분/ 오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3: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자료 볼 수 있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배정된 자리 순서대로 면접 진행				

질문 및 답변 내용

오전 공통 제시문 질문

Q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A : 저는 가장 먼저 영어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기른 영어 실력으로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국 초등학교에서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적용하면 유익할 교육적 요소를 탐구하고 현장에서 아이들과 막힘없이 소통하며 교육에 대한 다양한 아이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훗날 어떤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구체적인 교육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교육 봉사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Q :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A :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처가 되었으면 어떡하지,' '학생회 회의 때 무시한 의견이 있으면 어떡하지'와 같이 사소한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확신'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말을 하기 전 두 번 생각하고 내뱉기, 학생 회의 때 모든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하기와 같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이를 통해 걱정을 점차 줄여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단점을 극복해 나간다면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좀 더 신중히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공동체 생활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질문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A : 저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정신'이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시민동아리 '어스파이어'에서 활동하면서, 친구들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 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 :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A : 저는 아이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동아리 어스파이어에서 기장으로 활동하면서, 부원들에게 매번 세계 각국의 이슈를 알리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기 위한 토론, 게임 등을 진행하면서 동아리원들과 학교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게임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둠별로 '종이봉투 접기'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종이봉투를 접어서 상인 역할을 맡은 친구에게 파는 것인데, 모둠별로 초기 자본금도 다르고 임금 또한 다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개발도상국이 겪는 노동 속 불평등을 느끼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 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생기부 기반 꼬리 질문

Q : 봉사를 많이 했는데 간격이 다들 때가 있다. 이렇게 봉사를 하면 아이들과 유대를 쌓기 힘들지 않나?

Q : 'The Help'라는 책을 읽었는데 원작을 읽었나요, 번역판을 읽었나요?

Q : 원작은 매우 두꺼운데 정말로 다 읽었나요?

Q : 다 읽었다면 내용 잘 알겠네요. 이 책 속에서 아이와 어른 간의 관계가 가장 잘 조명되는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Q : 백인 가정의 아이가 다 성장했을 때 가정부가 이 아이의 인생에 미친 영향이 나오는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매우 무서운 압박 질문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후 면접 (발표지 구상, 작성 30분 / 발표 10분)

Q :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이 호기심이 생겼던 것에 대한 탐구를 통해 '도표 포스터'를 제작하라.

발표 내용

1. 제목 : '불안은 줄이고 시간은 아끼고'

2. 주제 설명 및 선정 이유 : 평소 문득 무엇인가 확인해보고 싶어졌을 때,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없던 경험 (예 : 집에서 나왔을 때 문득 가스 불을 안 끈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해보러 집에 돌아갔으나, 가스 불이 꺼져 있어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경험)이 많음. 이러한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의 근원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서 하게 된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 이를 통해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 낭비와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효과가 있음.

3.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연구 대상은 청소년, 중장년층, 노년층 각 연령별 무작위 50명. 연구 방법은 질문지법과 면접법.

(여기서부터 저는 원그래프와 막대그래프를 그리고 예상 결과를 표현했습니다.)

원그래프 - 질문지법 : '문득 확인해보고 싶어져서 확인했지만 할 필요가 없던 경험이 있다'

-예 (75%) 아니오(25%)

막대그래프- 면접법(원그래프에서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그렇다면 그 생각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위 : 자기 확신 부족

2위 :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더 썼습니다.)

4. 예상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에 활용
- ‘바쁜 일상 속 현대인들의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신문 작성’
+ 체크리스트 작성 (예: 집을 나서기 전 해야 할 목록 등)을 제안.

추가 질문

Q : 연구 대상을 연령별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연령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다르고 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령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공부로 인해’, 청장년층의 경우 ‘바쁜 출퇴근 및 회사 업무’, 노년층의 경우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 등과 같은 답변에 대한 세부적인 이유를 추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 체크리스트 작성을 제안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이런 연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A :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연구와 연구 결과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의 근원을 탐구해보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이런 연구를 해본 적이 있나요?

A : 아니요, 없습니다.

Q : 지금 즉석에서 하신 거예요?

A : 네, 맞습니다.

(다들 흐뭇하게 웃으심)

(이외에도 질문 3가지 정도 더 하셨는데 발표의 허점을 정확히 지적하셔서 매우 당황했던 것만 기억이 나고 질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네요. 전부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사항인재 전형은 오전을 망치더라도 오후면접이라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 끝까지 자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멘탈 관리 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출 문제에는 오전은 생기부 질문이 대부분이었으나, 올해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상하기 힘든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면접 또한 마찬가지로였으나, 저는 면접에 가기 전 다양한 사물의 원리나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꼼꼼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변형하거나 활용하면 좋을지 등을 생각하며 오후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해왔습니다. 후배분들께서도 평소에 사소한 것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노력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발력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예상치 못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준비하시면 도움 될 거예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		
전형명	교직원성우수자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문제지]

1-1. 그림 : 영어로 되어있는 삽화로 각기 다른 동물들에게 공정성을 이유로 나무를 오르는 시험을 똑같이 치라는 내용

Q : 다음 삽화의 내용을 통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밝히시오.

1-2. 제시문 :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로 우수하고 뛰어난 형질이나 문화 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내용

Q : 다음 제시문의 내용에 따른 ‘사회적 다윈주의’를 비판하시오.

2-1. 제시문 : 종교와 성직자, 교육과 교사를 다룬 지문

Q : 위 제시문의 관점으로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교사의 특성을 추론하여 설명하시오.

2-2. 제시문 : 정치적인 내용과 교사 자신의 생각이 교육에 반영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법 조항

Q : 다음 법 조항과 관련하여 교사의 역할과 주의할 점, 교육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시오.

기출문제가 홈페이지에 탑재되니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우선 저는 준비가 부족했던 탓인지 10분 동안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실제로 진짜 내용을 7분 만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10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거기다 문제와 제시문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교수님도 계속 약간 무표정에 가우뚱하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생기부와 자소서 질문은 아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 방법은 평소에 교육시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 논란이 되는 이슈는 잘 안 나오지 않고 전통적인 학자의 이론이나 견해에 대한 본인의 생각, 특히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경제학적 이론이거나 과학적 상식, 그래프와 통계자료를 보고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전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고교성적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제시문 보는 시간 3분, 면접시간 3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시사 4개 중 2개 뽑은 후 하나 선택 ◆ 교육시사 4개 카드 중 하나 선택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일반 시사는 반려동물의 장단점과 할로윈의 과도한 분장에 대한 카드를 뽑았는데, 나는 반려동물의 장단점을 선택해 대답했다.

A : 반려동물의 장점으로 우선 심리적 안정감을 들고, 성인의 경우 퇴근 후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고, 독거 노인들의 경우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아이들의 경우 생명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책 등의 건전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반려견의 경우 생길 수 있는 충간소음 문제와 공공장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배변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거나 반려견의 배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을 때)을 말했다.

Q : 교육시사는 2개를 뽑았는데 나머지 하나의 카드를 보기도 전에 자사고, 특목고, 외고 폐지 찬반을 선택했다.

A : 우선 자사고, 외고, 특목고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이러한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일반고 학생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고등학교는 학비가 비싸서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진학하기 어렵고 이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진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개인면접(10분) + 적성인성검사(50분) + 집단면접숙고시간(15분) + 집단 점(5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개별면접 대기 → 개별면접 → 적성인성검사 → 집단면접 제시문 숙고시간 → 집단면접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진행(교복 착용 금지), 전자기기 소지 금지 ◆ 대기 시간 준비해온 자료를 볼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 개별 면접

Q : 2년간 반장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 학급회의 시간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제의 원인이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데 두려워하던 것임을 깨닫고 쉬는 시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Q : 본인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한 활동을 3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A :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면서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동아리인 '도란도란'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토론을 통해서 저만의 교육관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동아리 '교집합' 활동에서 수업 실연을 통해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Q : 글쓰기 상장을 많이 받았는데 본인이 쓴 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무엇입니까?

A :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마웠던 인물에 대해 쓴 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집단 면접

Q :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과 없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A : 우선 교육의 차이로 프랑스, 독일 등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국가와 한국과 같이 결과를 중시하여 학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국가의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환경의 차이로 학생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부족한 국가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 풍부한 국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의 차이로 교사의 역할이 단순히 학습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AI가 대체 가능하다고 보지만 학생들을 교화시키고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AI가 대체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 : 본인은 AI가 교사를 대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A : 저는 AI는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사를 통해 4차 산업시대의 희소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재학생들 교수님 모두 친절하셔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진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21세기교직적성				
면접 형식	면접시간	개별10분,집단5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개별10분-적인성검사50분-제시문숙고15분-집단50분			
유의사항	◆교복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 개별 면접

Q : 교실붕괴의 원인과 해결책을 말해보세요.

A: 개인적원인으로는 교사의 자질 부족과 교사가 번아웃 현상으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입시만을 중시하는 학교분위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비교적 덜 이루어져 교사에 대한 공경심이 줄어들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교사는 교사협력공동체 활동으로 꾸준히 자기성찰과 주변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학교에선 학생을 대상으로 예절, 윤리교육을 자주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Q : '아몬드' 책을 읽었는데 설명해봐요.

A: (대충 줄거리 이야기한 후) 책의 주인공처럼 감정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면 칭찬사위처럼 아이들과 다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자주 하며 공감과 배려심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느끼도록 돕고 싶습니다.

Q : 어린 학생들은 고자질을 많이 하는데,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A: 먼저 고자질을 해야하는 경우와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분명히 구분지어 알려주고, 교사가 바쁠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으면 칠판에 번호를 매겨서 적어놓으면 나중에 보고 해결해줄만한 일은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질문은 더 받았는데 더 이상 기억이 안 남,

◆ 집단 면접(제시문내용:숙제 없는 학교)

Q : 숙제의 장단점

Q : 숙제다운숙제는 어떤 숙제인가

Q : 본인이 이때까지 했던 가장 숙제다웠던 숙제는?

*3분동안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토의했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진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		
전형명	학종 / 21C 인재형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교수님과 3: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진주교대는 **개별면접**, **교직적인성 검사**, **집단면접**이 있습니다. 교직적인성 검사는 학교에서 주로 하는 성격진단 테스트 느낌이고 50분동안 문항을 풀어야 합니다. 이는 점수에는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합니다. 순서는 조별로 상이합니다. 참고로 저는 검사, 개별, 집단 순으로 봤습니다.

◆ **개별면접**

개별은 교수님과 1대 3면접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10분 동안 진행됩니다. 생기부, 자소서, 교직원 등 초등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 **집단면접**

집단면접은 전체적인 틀은 바뀌지 않지만 매년 조금씩 구체적 사항이 바뀐다고 합니다. 진주교대 입학처에 탑재되는 **면접영상**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집단면접은 자기 팀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과 함께 집단면접 숙고실이 있습니다. 마치 학교 지필고사 시험장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상위에는 3색펜과 A3종이가 있으며, 시험시작 5분 전에 문제지를 배부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일제히 문제지를 보고 본인의 답변을 기록합니다. 이때 A4 메모지도 배부하지만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A3 발표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숙고 시간은 **15분**,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시간 내에 문항분석과 근거 작성 그리고 발표지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제 한 친구가 발표지를 작성하는 것을 까먹어서 난감한 상황이 당일에도 발생했으니 주의합니다. 15분이 지나면 발표지와 소지품을 챙겨 반을 접어 다른 동으로 이동합니다. 보통 진주교대는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해 결시율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6인 1조로 집단 면접을 보게 되며, 심사관은 개별면접을 봤던 교수님과 동일합니다. 아마 평가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개인발표를 진행하고 자유토의 후 교수님께서 공통 질문과 추가 질문 등을 하시면 전체 토의가 마무리 됩니다. 토의가 끝나는 시간은 조별로 약간 상이합니다. 교수님이 꼼꼼하게 질문하시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 있으나 이걸 토의가 수준 있게 진행되었다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집단 면접 주의사항**

- ① 토의 중간에는 교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지만, 이 토의 진행자는 교수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발표순서부터 질의 순서 등을 모두 진행하십니다. 절대 자신이 돋보이고 싶다고 진행을 하거나 토의를 이끌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 ② 발표자는 다른 지원자를 보면서 말해야 합니다. 간혹 교수님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합니다.
- ③ 다른 지원자의 발표내용과 교수님의 질문을 반드시 메모해야 합니다. 아니면 토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필기에 너무 몰두해 계속 종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종이를 보지 않고 상대방을 보며 메모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 ④ 마지막으로 이것은 **토의**입니다. 진행이 과열되면 토론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집단 토의인 것을 명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개별면접

개별면접 질문은 교수님 스타일마다 너무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기부, 자소서 질문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교대와 달리 지원동기, 교직원 같은 기초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처음 시작이니까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제 질문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하셨고 독서를 빼고는 포괄적으로 물어 보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느끼거나 배운 점 등을 물어봤다는 뜻.)

봉사활동, 진로희망, 독서(독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확실히 말하거나 아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인교육, 예술교육, 교대 생활 등 전반적인 질문.

참고로 어느 교대를 지원했느냐, 점수는 무엇을 먹었느냐 등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이는 개별에는 면접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집단면접

집단면접은 진주교대 입학처에 기출문제가 매년 탑재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꼭 시간 맞춰서 연습하시고, 다른 교대는 솔직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진주교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진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학과	○		
전형명	21세기 교직 적성자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5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서류 기반 개별 면접(10분)+제시문 기반 집단 면접(30분)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개별면접

Q : 교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 말해보세요.

A : 제가 생각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은 수업(?)과, 수업 외적인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업 측면에서, 공동체 의식을 통해 학급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외적인 측면에서, 공동체 의식을 통해 학부모, 사회와 교육공동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의논해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최근 학교에서 시험 대신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학업성취도가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저는 수행평가로 평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로 평가를 한다면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인성, 잠재성의 전인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한다면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원하는 공부를 함으로써 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본인이 학교 생활하면서 인내심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나요?

A : 저는 체육 교과에서 성취도 B를 맞았었는데, 다음 학기에 A를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 심폐지구력이 약해서 왕복 오래달리기를 힘들어했었는데, 매일 등하교 시에 빠른 걸음으로 꾸준히 걸어 다니면서 심폐지구력을 키웠습니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Q : 본인이 봉사했던 내용?

A : 저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점을 보고 도와주고자 코딩으로 수학 게임을 만들어 시청각 자료를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제가 가진 지식으로 남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기뻐했습니다.

Q : 어느 심화전공 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A : 저는 컴퓨터교육 심화전공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지식 그 자체보다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워보고 싶습니다.

Q : 진주교대가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 3가지만 말해보세요.

A : 첫 번째는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동체의식의 출발이 내가 먼저 행동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장애 이해 교육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식개선 해오름 활동에서 친구들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고 인식을 개선할 것을 격려하는 피케팅 활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학습 부진아에 대한 교육방법의 경험이 많습니다.

◆ 집단면접(제시문 주제: 숙제 없는 학교)

Q : 숙제의 장단점

Q : 숙제가 가정, 수업,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숙제의 교육적인 활용 방안

A : 발표하겠습니다. 숙제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숙제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은 미성숙하기에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추상적인 원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방과 후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시청각 자료를 찾아보거나, 사물을 직접 만지고 오감으로 느껴보면서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성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수준별 수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학급에는 1등부터 30등까지의 석차를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이 30명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해 모두 개별적으로 지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습지에 상, 중, 하 수준의 문제를 모두 주고 자신이 풀 수 있는 만큼을 숙제로 풀어오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끔 문제를 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별화 지도가 가능해져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사교육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숙제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방과 후에 과제를 하느라 부모님이나 동생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초등학생들은 부모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쌓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방과 후에도 부모님과 체험학습이나 대화할 시간이 없이 숙제를 한다면 학습에 대한 부담과 함께 가족와의 유대관계가 약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측면은,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급 아이들의 가정환경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나이인데, 집에 돌봐줄 어른이 없다면 숙제를 모두 해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수업시간 전의 준비도에 있어 각자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이 차이는 이해도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해도의 차이는 결국엔 흥미도와 성취도의 차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숙제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았습니다. 저는 숙제를 진로 교육과 연관시켜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안은 '장기적인 꿈 찾기 숙제'입니다. 먼저 지식교육에서의 측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 이제는 지식 그 자체보다는 지식을 활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렇기에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 꿈인 아이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집에 가서 숙제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시청하고, 쓰레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봄으로써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성교육에서의 측면입니다. 아이는 이 숙제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의견을 나눴으로써 예절을 배우고, 어른들의 지혜를 받아들여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재성교육에서의 측면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 찾기 숙제를 통해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며 행복감과 뿌듯함을 느끼고 학습에 대한 흥미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제시문 기반 면접 준비 과정에서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자주 접하고 배울 점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배움나눔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2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대기실 대기 - 다른 대기실로 이동해 제시문 읽고 정리(10분) - 면접실 입실 - 제시문 발표(5분) - 개별질문(10분)		
유의사항	복장을 가리기 위한 가운 제공(교복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 개별 면접

Q : 모범상을 받았으면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 해결을 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갈등 해결 사례?

Q : 지역아동센터 봉사에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수업과, 가장 좋아했던 수업은?

Q : 자신 있는 예체능?

A : 음악,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답변

Q : 초등교사라는 진로를 가지게 된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A :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

Q : 리더십 발휘 사례?

A : 과학 동아리 부장 관련, 내가 생각하는 리더(먼저 행동하는 리더)의 모습을 함께 답변

Q : 책 '교사 생활 월령기'를 읽었는데, 월별로 교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

A : 인권조례 관련

Q-1 : 그럼, 인권조례 등과 관련해서 현재 초등학교 학급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 보상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ex. 칭찬 스티커). 이것과 관련한 본인의 생각?

A : 보상 제도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 그러나 보상이 최대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부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함. 보상 제도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아이들에게 계속 교육해야 함.

Q : 약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학과	○		
전형명	배움나눔인재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1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제시문 기반 개별 과제 발표(5분)+서류 기반 개별 면접(10분)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발표

Q : 교사로써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A : 네. 저는 초등교육의 기초가 되는 전인교육을 들어서 인공지능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식, 인성, 잠재성으로 전인교육을 구조화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교육입니다. 인공지능 교과서를 활용한다면, 단순히 시험 성적인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교내 진로탐색 대회에서 읽은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의 '딥 러닝' 기술을 활용하면 아이들이 문제를 얼마나 오래 고민하고 풀었는지, 그리고 어떤 교과목에서 흥미를 보이는지 등의 정보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사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이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중요시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성교육입니다. 아이들은 피아제 발달단계상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성 사고에서 이제 막 벗어나는 단계이며, 추상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자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를 들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가상 학교폭력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재성 교육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주체적으로 경험하는 직업 체험의 기회를 인공지능 교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교사가 제공하는 게임 등을 통해 교사, 변호사, 택시 기사 등의 직업을 체험해보고 꿈과 끼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개별 면접

Q :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A : 네. 저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를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피구공을 무서워해서 공동체 경기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담임선생님께서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시고 제 적성에 맞는 심판이라는 역할을 추천해주셔서 공동체 활동에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즐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교실 밖 아이들 책으로 만나다'라는 책에서, 고정원 선생님께서 비행소년 아이들의 가정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책을 선물해주심으로써 비행소년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학교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교사의 관찰력과 관심이 아이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크게 감명받았고, 교사가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Q :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활동 한 가지씩 말해보세요.

A : 네. 먼저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입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의 수학 학습을 도왔습니다. 구구단을 외워야 했는데, 암기식 학습에 익숙지 않은 아이들에게 시청각 자료인 코딩 게임을 만들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에듀테인먼트를 통해 아이들의 흥미도를 높일 수 있었고, 흥미도는 곧 이해도와 성취감으로, 성취감은 자존감 향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활동은 1학년 독서토론 동아리 때 통일을 주제로 한 토론활동이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갈려야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 찬성 쪽에 대부분 몰려서 토론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반대 측의 추가적인 의견을 조사해 제시했고, 친구들이 반대 측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아리장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교사로서 양측 의견을 모두 제시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Q : 그러면 반대 측 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친구들이 반대 측으로 잘 옮기겠다고 했나요?

A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찬성 측 친구들에게 ‘왜’ 찬성의 의견인지, 그리고 반대 측을 반박할 근거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를 물어보고 경청함으로써 친밀도를 쌓고 래포를 형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조사한 반대 측 의견에 대해 설명해 줌으로써 친구들은 자발적으로 반대 측 의견에도 동의해주었습니다.

Q : 자소서 3번을 보면 ○○이가 음식물을 수업 시간에 먹어서 자치법정에서 해결했다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왜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희련이가 동의했나요?

A : 네. 저는 ○○이가 수업 시간에 배고파서 음식을 먹은 것을 공감해주었지만, 수업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옆에서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이 부스러기나 냄새로 인해 친구들의 쾌적한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설득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동시에 친구들의 권리 또한 존중해 주자는 저의 의견에 ○○이는 동의했습니다.

Q : 그러면 이후에 ○○이가 바로 태도가 고쳐졌나요?

A : 네. 물론 금방 바뀌지는 않았습니.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아직 음식물을 자주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와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며 복도에서 ○○이를 만날 때마다 “○○아 요즘은 아침 잘 먹고 있지?” 하며 격려해주었고 이후로 서서히 줄어서 2학기인 지금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Q : 청주교대 와서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A : 네. 저는 청주교대의 특색 프로그램인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동료 교사, 선배 교사들과 토론을 하며 저와 다른 생각들을 많이 듣고 배우는 태도를 기르며 집단지성을 이루고 싶습니다.

Q : 이때까지 읽은 책 중에 가장 어려웠거나 가장 읽는 데 오래 걸렸던 책이 있나요?

A : 네. 저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책을 읽으며 교육 복지제도에 대해 오래 고민했기 때문에 읽는 데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영수’는 중학생임에도 생계유지의 문제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며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교육의 접근 기회의 균등과, 교육 결과의 균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청주교육대학교 면접은 5분간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개별과제발표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머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5분간 발표하는 감을 익히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주교대는 대구교대와 다르게 일반시사/교육시사 제시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사 공부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